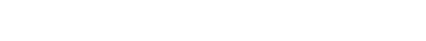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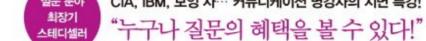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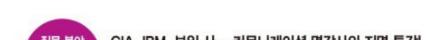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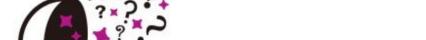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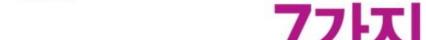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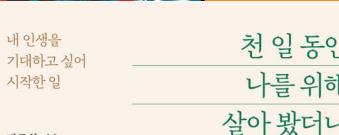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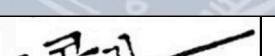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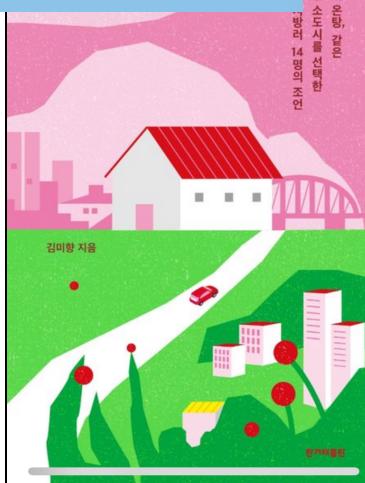


2024년에 읽은 책

내가 명종 위기인 줄도 모



2024년에 읽은 책 리스트	3
밑줄 모음	5
이연, 매일을 헤엄치는 법	5
김영하, 보다 읽다 말하다	5
김영하, 랄랄라 하우스	7
고미숙, 조선에서 백수로 살기	8
이일하, 이일하 교수의 식물학 산책	9
김혜남, 생각이 너무 많은 어른들을 위한 심리학	11
김미향, 탈서울 지망생입니다	12
크리스틴 마인저, 졸렌타 그린버그, 책 대로 해봤습니다.	13
로이스김, 구글 임원에서 실리콘밸리 알바생이 되었습니다	14
케이티 크리머, 내 탓 멈추기의 기술	15
L. 프랭크 바움, 오즈의 마법사	18
신미경, 나를 바꾼 기록 생활	18
이정섭, 내가 멸종 위기인 줄도 모르고	20
최승연, 주소 없는 삶에 대한 40가지 변명	21
김이나, 보통의 언어들	21
귀찮, 귀찮지만 매일 씁니다	23
서박하, 소비단식 일기	24
권예슬, 취향의 기쁨	25
박주원, 천 일 동안 나를 위해 살아 봤더니	26
김시내, 최수현, 퇴사합니다. 독립하려고요	28
알프레드 아들러, 항상 나를 가로막는 나에게	29
황현산, 황현산의 사소한 부탁	33
도로시 리즈, 질문의 7가지 힘	34
류동민, 시간은 어떻게 돈이 되었는가?	35
대런 아제모을루, 제임스 A. 로빈슨,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39
송길영, 시대예보: 핵개인의 시대	44
책이 추천한 책	48

2024년에 읽은 책 리스트

제목	저자	역자	출판사	서점/도서관/플랫폼	부터	까지	평점
삼체	류초신	이현아	단송	리디북스	2023-12-12	2024-01-13	4.0
23 단어의 배신자	프레데릭 폴		위즈덤 커넥트	리디북스	2024-01-14	2024-01-14	3.0
삼체 2: 암흑의 숲	류초신		단송	리디북스	2024-01-14	2024-02-11	4.0
헌터 패트를	헨리 빌 파이퍼	조원	위즈덤 커넥트	리디북스	2024-02-14	2024-02-22	3.0
지구 종말의 장	폴 앤더슨		위즈덤 커넥트	리디북스	2024-02-22	2024-02-27	2.5
과거를 죽이는 사나이	필립 K. 딕		위즈덤 커넥트	리디북스	2024-02-27	2024-02-29	2.5
인공지능 아서와 그의 기사들	프레데릭 폴		위즈덤 커넥트	리디북스	2024-02-29	2024-03-03	3.0
말하는 돼지, 웹	필립 K. 딕		위즈덤 커넥트	리디북스	2024-03-03	2024-03-03	4.0
쉴드	고든 R. 딕슨		위즈덤 커넥트	리디북스	2024-03-05	2024-03-05	2.0
붉은 방	H. G. 웰즈		위즈덤 커넥트	리디북스	2024-03-07	2024-03-09	2.0
아무튼, 비건	김한민		위고	공영책장	2024-03-08	2024-03-12	4.5
아무튼, 양말	구달		제철소	공영책장	2024-03-16	2024-03-17	4.5
여섯 손가락의 비밀	R. A. 래퍼티		위즈덤 커넥트	리디북스	2024-03-10	2024-03-25	3.0
도파민네이션	애나 렘키	김두완	흐름출판	광화문 교보문고	2024-03-18	2024-05-01	4.0
장하준의 경제학 레시피	장하준	김희정	부키	리디북스	2024-05-05	2024-05-27	5.0
매일을 헤엄치는 법	이연		푸른숲	양주시전자책도서관	2024-05-30	2024-06-01	3.5
나를 살게 하는 것들	김창욱		Kyobobook MCP	양주시전자책도서관	2024-06-02	2024-06-04	4.0
다시 한번 날개 하소서	이어령		성안당	양주시전자책도서관	2024-06-05	2024-06-06	3.5
그럴수록 산책	도대체		위즈덤하우스	양주시전자책도서관	2024-06-08	2024-06-09	3.0
뽀짜툰	채유리			김진희도서관	2024-06-23	2024-06-23	3.0
제철동 사람들	이종철		보리	김진희도서관	2024-06-24	2024-06-24	3.5
크레이지 가드너. 1	마일로			김진희도서관	2024-06-25	2024-06-26	3.5
보다 읽다 말하다	김영하			도봉구 전자책도서관	2024-06-11	2024-07-01	5.0
계속 버텨!	장자크 상페	양영란	열린책들	경기도사이버도서관	2024-07-01	2024-07-01	4.0
브로콜리 평원의 헐투	듀나		자음과 모음	리디북스	2024-07-02	2024-07-14	4.0
우주복 있음, 출장 가능	로버트 A. 하인라인	최세진	아작	리디북스	2024-07-16	2024-07-21	3.5
편 흠: 가족 회비극	엘리슨 백델	이현	움직씨	경기도사이버도서관	2024-07-22	2024-07-23	4.0
노르웨이 라면왕 미스터 리 이야기 : BE HAPPY	이철호, 이리나 리		Mirbooks Company	도봉구 전자책도서관	2024-07-24	2024-07-25	5.0
조선에서 백수로 살기	고미숙		Hankyung BP	경기도사이버도서관	2024-07-25	2024-07-29	3.0
이일하 교수의 식물학 산책	이일하		콩리	경기도사이버도서관	2024-07-29	2024-08-04	3.5
술꾼도시처녀들 완전판	미깡		위즈덤하우스	도봉구 전자책도서관	2024-07-23	2024-08-11	2.5
찐팬이 키운 브랜드 주말랭이	황엄지 (동자)		리드앤두	광화문 교보문고	2024-08-11	2024-08-11	3.5
우리를 아끼기로 합니다	김준		카멜북스	옥정호수도서관	2024-08-08	2024-08-16	3.5
생각이 너무 많은 어른들을 위한 심리학	김혜남		메이븐	광화문 교보문고	2024-08-12	2024-08-17	3.5
랄랄라 하우스	김영하		마음산책	옥정호수도서관	2024-08-18	2024-08-19	4.0
뇌는 어떻게 세상을 보는가	빌리아누르 라마찬드란	이총	바다출판사	옥정호수도서관	2024-08-19	2024-08-21	3.5
탈서울 지망생입니다.	김미향		한겨레출판	경기도사이버도서관	2024-08-23	2024-08-25	4.5
각자의 요가	이우재		원더박스	경기도사이버도서관	2024-08-25	2024-08-27	3.0
책대로 해 봤습니다.	크리스틴 마인저, 졸렌타 그린버그	양소하	알에이치코리아	경기도사이버도서관	2024-08-27	2024-09-02	4.5
구글 임원에서 실리콘밸리 알바생이 되었습니다	정김경숙(로이스김)		위즈덤하우스	도봉구 전자책도서관	2024-09-02	2024-09-03	4.5
나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한설희		허밍버드	경기도사이버도서관	2024-09-04	2024-09-05	2.5

제목	저자	역자	출판사	서점/도서관/플랫폼	부터	까지	평점
내 탓 멈추기의 기술	케이티 크리머	김지혜	위즈덤하우스	도봉구 전자책도서관	2024-09-04	2024-09-13	4.0
오즈의 마법사	L. Frank Baum		알에이치코리아	양주시전자책도서관	2024-09-13	2024-09-19	4.0
나를 바꾼 기록 생활	신미경			양주시전자책도서관	2024-09-19	2024-09-20	4.0
내가 멀종 위기인 줄도 모르고	이정섭		허밍버드	양주시전자책도서관	2024-09-20	2024-09-25	3.5
주소 없는 삶에 대한 40가지 변명	최승연		아미가	경기도사이버도서관	2024-09-25	2024-09-27	2.5
보통의 언어들	김이나		위즈덤하우스	양주시전자책도서관	2024-09-27	2024-10-02	3.0
귀찮지만 매일 씁니다	귀찮		아멜리에북스	경기도사이버도서관	2024-10-03	2024-10-09	4.0
소비단식 일기	서박하		휴머니스트	경기도사이버도서관	2024-10-09	2024-10-12	3.5
고양이의 크기	서글		이후진프레스	경기도사이버도서관	2024-10-12	2024-10-13	3.0
취향의 기쁨	권예슬		필름(Feel'm)	경기도사이버도서관	2024-10-13	2024-10-15	2.5
타워	배명훈		문학과지성사	옥정호수도서관	2024-10-15	2024-10-20	5.0
천 일 동안 나를 위해 살아 봤더니	박주원		Kyobobook MCP	경기도사이버도서관	2024-10-17	2024-10-21	3.0
천재가 어딨어?	그랜트스나이더	공경희	월북	경기도사이버도서관	2024-10-19	2024-10-21	4.0
퇴사합니다. 독립하려고요	김시내, 최수현		휴머니스트	경기도사이버도서관	2024-10-21	2024-10-22	3.0
올드독의 제주일기	정우열		예담	옥정호수도서관	2024-10-20	2024-10-25	4.0
항상 나를 가로막는 나에게	알프레드 아들러		카시오페아	경기도사이버도서관	2024-10-26	2024-10-30	4.5
황현산의 사소한 부탁	황현산		난다	옥정호수도서관	2024-10-26	2024-11-04	5.0
훤	한강		난다	양주시전자책도서관	2024-11-05	2024-11-05	4.0
스마일	김중혁		문학과지성사	옥정호수도서관	2024-11-06	2024-11-08	3.5
질문의 7가지 힘	도로시 리즈		더난출판	옥정호수도서관	2024-11-12	2024-11-15	4.0
책 좀 빌려줄래?	그랜트스나이더	홍한결	월북	옥정호수도서관	2024-11-18	2024-11-19	4.0
시간은 어떻게 돈이 되었는가?	류동민		휴머니스트	옥정호수도서관	2024-11-09	2024-11-21	4.0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대런 아제모을루, 제임스 A. 로빈슨	최완규	시공사	옥정호수도서관	2024-11-21	2024-12-16	4.5
시대에보: 핵개인의 시대	송길영		교보문고	옥정호수도서관	2024-12-26	2024-12-26	4.0
울라네 마을 선거	에스테르 뒤플로	최진희	라이브리안	옥정호수도서관	2024-12-28	2024-12-28	4.5

밑줄 모음

이연, 매일을 헤엄치는 법

내게는 지난 5월이 그런 시기였다. 그때 이런 일기를 썼다. 나는 잊히지 않을 거야. 숨어 있지만, 나는 사실 기억되고 싶다고.

김영하, 보다 읽다 말하다

그래도 일단 말을 하기 시작했다면, 그 사람은 강해진다. 자기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사람을, 실은 모두가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일단 말하기 시작하면 머릿속 생각이 정리되며 조리가 생긴다. 말하는 사람은 자기 권리를 지킬 수 있고, 타인을 도울 수 있으며, 증인으로 나서 범죄를 벌할 수 있고, 정치적 세력을 형성할 수 있다. 이렇듯 보기는 말하기를 통해 결정적인 힘을 가지게 된다.

폰 쇤부르크 씨의 우아하게 가난해지는 법¹.

꼭 여행을 가야만 했다면 온 식솔을 이끌고 아예 거주지를 옮겨버렸다는 것.

아이는 자기를 덜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에 들려고 애쓴다고 한다. (...)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바로 그것 때문에 아이에 대해 힘을 갖게 된다. 나쁜 부모는 아이를 사랑하지 않음으로써 아이를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알게 된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언제나 그렇듯이 현실은 이항대립 사이 어딘가에서 부유한다.

영화 아무도 머물지 않았다

프랑스는 과거 아버지들이 도맡았던 양육과 보호의 의무를 국가가 대체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분명한 사회적 합의를 이룬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 저출산으로 고민하던 프랑스 사회가 내린 현실적 결정이었고, 이에 따라 가족의 보호자로서의 아버지의 필요성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프랑스나 일부 유럽 국가들에는 일종의 신 모계사회가 출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소설이든 영화든 끝까지 봐야 온전한 반응이 나올 수 있는데, 소설은 영화와 달리 끝까지 보는 경우가 드물고, 일단 끝까지 보았다면 그것은 그 작품의 어떤 면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독자는 등장인물을 이해하고 그 인물에 감정이입이 되지 않으면 소설을 끝까지 읽어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떤 소설을 끝까지 읽었다면 거기엔 무엇이든 독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최소한의 것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만약 어떤 소설이 실망스러웠다면 바로 던져버리고 그 작품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거나 입을 다물었을 겁니다.

책이 충분히 재밌지 않으면 우리는 책장을 덮고 책을 그만 읽기로 결심한다. 그래도 된다.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다. (...) 그러니까 책을 읽는 매 순간, 우리는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조금 더 읽겠다고.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렇게 해서 한 권의 책을 끝내게 된다. 완독이라는 것은 실은 대단한 일이다. 그만 읽고 싶다는 유혹을 수없이 이겨내야만 하니까.

플로베르는 분명히 말했다. “거의 아무런 주제도 없는, 만약 그런 것이 가능하다면 적어도 주제가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책을 쓰겠다고. 중심부는 그 무엇이라도 좋은 것이다. 플로베르는 중심부가 아니라 독자가 중심부에 다다르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설을 읽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헤매기 위해서일 것이다. 분명한 목표라는 게 실은 아무 의미도 없는 이상한 세계에서 어슬렁거리기 위해서다. 소설은 세심하게 설계된 정신의 미로다.

반대로 소설은 우리가 라스콜니코프, 험버트 험버트, 히스클리프라고 말함으로써 독자의 내면에 자리잡은 독선을 해체한다. 이것은 가해자와 연대하자는 뜻이 아니라 스스로를 ‘복잡하게 좋은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 독자들로 하여금 혹시 자기 안에도 이런 괴물이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만든다는 뜻일 것이다. 가해자의 내면이 어느 정도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이 한편 독자의 내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고대 그리스인들이 믿은 바와 같이, 인간의 성격은 오직 시련을 통해 드러나는데, 우리는 아직 충분한 시련을 겪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를 언제나 잘 모르고 있다. 소설이 우리 자신의 비밀에 대해 알려주는 유일한 가능성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그중 하나인 것만은 분명하다. 그리고 어쩌면 그중에서 가장 이상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내가 모르는 내 숨겨진 모습과 만나기 위해 책장을 펼친다.

그러나 점점 많은 책을 읽어 나가면서 개개의 책들이 외딴섬처럼 고립돼 있는 것이 아니라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사실 독자로 산다는 것에 현실적 보상 같은 것은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의 짧은 생물학적 생애를 넘어 영원히 존재하는 우주에 접속할 수 있다는 것, 잠시나마 그 세계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독서의 가장 큰 보상일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어른들의 바람은 늘 그런 식이기 때문입니다. 대학만 들어가라, 졸업만 해라, 결혼만 해라, 아이만 하나 낳아라, 그다음부터는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지만 아무 조건도 없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날’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장 바꿀 수 있는 것은 세상과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대책없는 낙관을 버리고, 쉽게 바꿀 수 있다는 성급한 마음을 버리고, 냉정하고 비관적으로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한 사람의 개인으로, 독자적으로 사고하는 일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다른 사람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잘 받는 우리 인간들의 속성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새로운 기법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비관적 현실주의에 두되, 삶의 윤리는 개인주의에 기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과 다르게 생각하는 것, 남이 침범할 수 없는 내면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개인주의란 타인의 삶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독립적 정신을 가지고 살아 가는 것, 그 안에서 최대한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싶습니다. 이때의 즐거움은 소비에 의존하지 않는 즐거움이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많이 벌고 많이 쓰고 많이 저장하는 삶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런 비관적 인식하에 지금 여기에서 어떤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지에 대해 개인적으로, 독자적으로, 개별적으로, 현실적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잘 느끼는 것은 왜 중요할까요? 자기 느낌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의견에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 자신만의 느낌의 데이터베이스가 충분한 사람은 타인의 의견에 쉽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참고는 하겠지만 의존하지는 않을 겁니다.

문학은 태생적으로 개인주의적이며 우리에게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느끼는 것도 모두 의미가 있다고 말하는 세계입니다.

잘 느끼자. 감성 근육을 키우자. 그리하여 함부로 침범 당하지 않는 견고한 내면을 가진 고독한 개인들로서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자.

마흔이 넘어서 알게 된 사실 하나는 친구가 한국사회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것만큼 중요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 인맥이니 인간관계니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자기 자신의 취향에 귀기울이고 영혼을 좀 더 풍요롭게 만드는게 나를 위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는 그냥 이곳저곳을 가보는 식의 여행은 그만하려고요. (...) 지금은 다른 방식의 여행에 흥미를 갖고 있어요. 관심이 있는 어느 한 도시에 오래 머무는 방식의 여행인데요. 예를 들면 로마 같은 지역에 숙소를 잡아서 오래 머무는 방식이죠. 전통적인 여행보다는 '산책가로서의 여행'으로 관심이 넘어가고 있어요. 여행을 하는 게 아니라 옮겨다니면서 사는 삶에 가깝죠.

글을 쓴다는 것은 인간에게 허용된 최후의 자유이며, 아무도 침해할 수 없는 마지막 권리입니다. 글을 쓰므로써 우리는 세상의 폭력에 맞설 내적인 힘을 기르게 되고 자신의 내면도 직시하게 됩니다. (...) 그게 무엇이든 일단 첫 문장을 적으십시오. 어쩌면 그게 모든 것을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반항은 젊은이의 본성이니까요. 학교에서 자꾸 쓰라고 하니까, 안 쓰는 걸로 반항하고, 술 먹고 캠판치다가 졸업하면 써놓은 게 없어요. 그러니 완성된 소설을 강요하기보다는, 인물 묘사 열심히 하고 책 많이 읽으라고 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지론이예요. 미숙한 상태로 사년 동안 매 학기 소설을 뽑아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는 연기를 해주야 돼요, 연기를. 욕망을 자꾸 연기시켜야 하고요.

"그래? 그래서 어떻게 됐어?"라고 묻는 것, 그리고 그 질문에 답하는 것. 이 순간이 바로 스토리텔러가 탄생하는 마법의 순간입니다.

소설을 시작했을 때는 저와 비슷한 면이 있을 수 있었겠지만, 소설을 써나가는 동안 계속 옷을 주워 입으면서 저는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 비슷할리가 없죠. 제가 소설을 좋아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하지만 그들은 자기 고통을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비해 아름답다고 말해볼 기회가 거의 없죠. 그에 비해 작가들은 자기의 고통을 남에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따라서 '듣기'는 윤리이기 이전에 작가가 직면한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작가는 자신(의 신념, 지식, 습관, 정치적 성향, 취향)을 서서히 해체하면서 엄청난 노동을 투입하여 한 세계를 만들어가는데, 지나고보면 그것이 결국 '받아 적기' 혹은 '듣기' 옆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흔히 받는 질문입니다만) 이 작품을 통해 뭘 말하려고 했느냐는 질문은 무의미합니다. 말하려고 한 무언가가 아마 있었겠지만 쓰는 동안 잊어버렸다, 가 정답일 겁니다.

박민규 작가 (국적을 초월한 문화적 유산)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은 두 언어를 사용하는 부모 덕분에 언어적 감수성이 민감할 것이고 불안정한 상태에서 살아 가느라 굉장히 예민하게, 날카로운 자의식으로, 아웃사이더의 시점으로 한국사회를 바라볼 거예요.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 독자들에게 널리 읽히는 소설은 여러 문화의 혼종을 통해 빛어진 변종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돌연변이의 산물이기 때문에 미리 예측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고, 기획하여 생산하는 것도 어려울 겁니다. 한국문학의 세계화라는 게 만약 실현된다면, 그 준인공은 아마도 한국의 저서를 잘 살린 문학이 아니라 이상한 것, 어지럽게 뒤섞인 것, 도저히 우리가 한국문학이라고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 만약 우리가 정말로 한류를 지속시키기를 원한다면 더 열심히 하는 것 보다 더 이상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영하, 랄랄라 하우스

169쪽, 책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앞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나는 지금 책을 읽고 있으니 말을 걸지 마시오'라는 메세지를 전달하는 것이었다. 이제는 이어폰이 대신. 이어폰은 꼭 질문을 되풀이하게 하는 기능을 가짐.

173쪽, 어른들이 술에 취해 중요하다고 훈시하는 주제가 사실은 그 어른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라는 걸 간파한 김영하 대단.

178쪽, 도로시 리즈 '질문의 7가지 힘'? 질문을 해서 유방암을 극복한 사례 질문자가 상황을 통제.

고미숙, 조선에서 백수로 살기

4차산업혁명에 대해서는 온갖 담론이 무성하지만, 간단하게 정리하면 ‘노동 해방’이 아닐까 싶다. 앞으로 노동은 대부분 알파고,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이 담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인간은 노동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노동시간을 줄이고 노동 강도를 낮추고... 마침내 노동에서 벗어나게 된다. 1980년대 민주화운동 시절, 가장 과격한 구호가 ‘노동 해방’이었다. 그때의 의미는 노동자가 자본가의 착취에서 벗어나 역사의 주역으로 우뚝 서는 것이었다. 당시만 해도 노동은 더할 나위 없이 신성했고, 그 주체는 어디까지나 인간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한데, 그 ‘거룩한’ 전제가 완전히 뒤집힌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덕분에 인간은 바야흐로 노동에서 해방되고 있다. 물론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노동 해방이 아니라 노동 그 자체에서 벗어나는 노동 해방!

그동안의 물질적 풍요에 질린 점도 크다. 솔직히 중산층 아파트를 장식하는 온갖 인테리어와 상품들 중에 꼭 필요한 것이 얼마나 될까? 또 그 물건들과 교감하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하긴 그 이전에 아파트 자체가 주거 공간이 아니라 거대한 상품이다. 거기에서 좋은 삶, 좋은 관계가 만들어지기는 애당초 글렀다. 그러니 그런 삶에 회의가 드는 건 지극히 당연하다.

백수들은 이런 흐름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이런 시대에 소비 충동에 휩싸여 쓸데없는 물건을 ‘사대는’ 것은 정말 후진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소비 충동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을까? 소비를 줄일 수 있다면 부채에서 벗어나는 건 시간문제다. 그리고 소비와 부채의 망령만 떨쳐내도 두 발로 당당하게 걸을 수 있다. 그게 바로 자립의 진수다.

당연히 잠은 제대로 잘 수가 없다. 잠을 줄여가며 매진하는 것이 꿈의 속성이다. 꿈이 있는데, 8시간 이상 잔다면 그건 이미 실격이다. 또 꿈을 이루었는데, 그렇게 해도 역시 실격이다. 결국 꿈을 이루건 아니건 결론은 불면증이다.

또 하나, 사랑은 변덕스럽고 예측 불가능하다. 강렬한 쾌감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번식을 위한 불가피한 코스 이긴 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하다.

그러므로 백수에게는 이 현장의 확보가 절실하다. 지성과 유머를 갈고닦을 수 있는 벗들이 있는! 좀 고상하게 표현하면, 자의식의 감옥을 벗어나 로고스의 향연을 누릴 수 있는!

뷰(view)가 좋다고? 그 뷰를 감상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그렇게 좋으면 밖으로 나와서 풍경 속으로 들어라. 스스로 뷰가 돼라. 남산이 한눈에 보이는 뷰를 가지려 하지 말고 그냥 남산을 걸어라.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를 사려면 돈이 양수로 많이 든다. 하지만 한강변을 산책하는 건 완전히 공짜다! 한강변을 바라보는 것과 그 위를 걷는 것, 어느 게 나은가? 전자는 머무르고 후자는 움직인다. 살아 있다는 건 움직이는 것이다. 생명의 표지는 유동성이다. 모든 세대가 청춘을 부러워하는 건 이 유동성 때문이다. 유동하는 마음, 움직이는 신체, 그게 청춘이다. 집(사실은 골방)에 죽치고 앓아 눈동자와 손가락만 까딱하고 있다면 그건 좀비와 다를 게 없다.

거듭 말하지만, 가족 관계의 핵심은 돈이 아니다! ‘동선과 리듬’이다.

그럼 그 긴 시간을 어디서 뭘 하느냐고? 일단 걸어라! 발길 닿는 대로 걸어라. 발길 닿는 대로 걷다 보면, 많은 것을 배우고 발견할 수 있다. 거리 자체가 책이요 텍스트다. 주변의 둘레길을 마스터한다든가 명승지를 답사한다든가, 아니면 도심의 골목 투어를 해도 좋다. 외국인들은 그 많은 돈을 들여 서울에 오지 않는가. 남산타워, 경복궁, 성곽길, 북촌 등을 답사하기 위해. 그렇게 걷다 보면 지역지물에 익숙해지고, 그 경험들은 주유천하를 하게 될 때 아주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

익숙한 것을 떠난다는 건 닫혀 있던 신체적 감각을 일깨우는 것, 다시 말해 감각의 배치와 분포도를 바꾸는 것임을 환기하라. 그래서 미각과 시각에 탐닉해서는 곤란하다. 미각과 시각에서 청각과 촉각, 후각 등으로의 전환 혹은 확장, 여행의 성패는 거기에 달려 있다. 그래야 사건과 스토리를 창안할 수 있으므로.

백수가 되는 순간, 백 권의 고전에 도전하는 미션을 스스로에게 부여해보라. 그럼, 눈뜨면 바로 동네 도서관, 지역 박물관, 아니면 북 카페 등등으로 뛰쳐나가게 될 것이다. 책을 읽으면 반드시 배가 고프게 되고, 그때 먹는 밥은 꿀

맛이다. 밥을 먹으면 걷고 싶어진다. 그러면 그날 읽은 책을 음미하면서 산책을 하라. 그리고 다시 독서! 그렇게 하루를 보내면 몸과 마음이 충만해질 것이다. 그런 시간을 쪽 이어가려면 당연히 벗이 필요하다. 이 문제는 귀가 아프도록 설명했으니 됐고. 백수가 이런 리듬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인류 평화에 기여하게 된다. 인류를 지키겠다고 열심히 싸우는 할리우드 영웅들보다 훨씬(사실은 그런 영웅들 때문에 세상이 어지러운 거다, 흥)! 연암도 말했다. “천하의 모든 이들이 책을 읽는다면 천하가 태평해질 것이다.”

그렇다. 핵심은 생명력이다. 시퍼렇게 살아 움직여야 한다. 사모관대처럼 화려한 레토릭으로 장식된 글은 오히려 쓰기 어렵지만 생기발랄한 삶의 현장을 담는 거야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은가. 어떤 편견에도 끄달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썼을 뿐인데, 유머가 되고 역설이 되는 그런 글쓰기 말이다. 『열하일기』가 세계 최고의 여행기가 된 비결 또한 거기에 있다.

동양 역학이건 서양 생물학이건 이 학문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바, 좋은 삶, 좋은 운명이란 길흉 사이의 조화에 있는 것이지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자연철학은 자본주의적 멘탈과는 불화한다. 성공을 하라고, 재산을 증식하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 반대다. 그렇게 달려가면 삶이 위태롭다고, 존재가 기울어진다고 끊임없이 경계한다. 하여, 그 암들은 그 자체로 휴식과 힐링을 제공한다. 운명의 키는 바로 자기 자신, 특히 욕망과 습관의 패턴에 있음을 확인하는 순간 노동과 화폐, 소비와 쾌락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아 나서게 된다. 자본의 기준에선 무용하지만 삶의 관점에선 실로 유용하다.

삶은 바로 이 지평선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다. 지평선은 결코 도달하지 못한다. 다만 나로 하여금 달려가게 할 따름이다. 시공의 무상한 변화와 더불어 그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으로서의 삶! 그것이면 충분하다.

미친듯이 돈을 원하는데, 정작 그 돈으로 하고 싶은 일이 남한테 주는 것이라니. 대박을 원하는 마음과 증여 본능이 혼거한다고나 할까? 결국 그 청년들이 진짜 원하는 건 돈 자체가 아니라 좋은 관계, 자유로운 활동이었다. 다만 그걸 위해서는 아주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믿고 있을 뿐이다.

이일하, 이일하 교수의 식물학 산책

그러나 식물은 배발생은커녕 이미 성체로 충분히 자란 이후에 꽃이라는 생식기관을 만들게 된다. 따라서 돌연변이를 유발하는 각종 환경에 고스란히 노출된 이후에 생식세포가 만들어진다. 이 때문에 식물은 유전적으로 불량한 생식세포를 걸러내는 안전장치가 필요한데 이것이 반수체 조직이다. 반수체 상태에서는 돌연변이에 의해 불량해진 유전자를 가진 세포들을 쉽게 걸러낼 수 있다.

이후 분해가 어려운 플라스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1990년대 말부터 생분해 플라스틱의 개발을 위해 식물을 다시 이용하기 시작했다. 옥수수기름뿐만 아니라 오렌지 껍질, 감자 전분 등 다양한 식물성 소재를 이용하여 플라스틱을 만들면 이것은 환경미생물에 의해 쉽게 분해되기 때문이다.⁶ 최근에는 좀 더 다양한 생분해 플라스틱을 만들기 위해 생분해 중합체(biodegradable polymer) PHA(polyhydroxyalkanoates)를 생산하는 GM 작물을 만들기도 하였다.⁷ 네덜란드의 아반티움(Avantium)이라는 재생화학 회사는 맥주회사 칼스버그와 협정을 맺고 플라스틱 맥주 용기를 모두 식물성 생분해 플라스틱으로 공급하기로 하였고, 나아가 전 세계 모든 플라스틱 용기를 생분해 플라스틱으로 대체하여 2023년에는 3억 톤의 플라스틱을 대체하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사물의 소재가 식물 → 석유 → 식물로 되돌아오고 있는 중이다.

식물이 엄청난 바이오매스를 차지하는 이유는 광합성 때문이다. 광합성은 햇빛에너지를 이용해 이산화탄소를 유기물로 전환하는 생합성 과정이다. 이를 CO₂ 고정이라 한다.

CO₂ 농도가 극히 낮아지는 상황은 햇빛이 강하고 온도가 높은 대낮에 광합성이 빠른 속도로 진행될 때 주변 공기 내 CO₂가 모두 소모되면서 벌어진다.

C4 식물은 CO₂를 고정하기 위해 루비스코를 이용하지 않는다. 루비스코는 그 기질로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¹³ C4 식물이 CO₂를 고정하는 효소로 선택한 것이 PEP Case(phosphoenol pyruvate carboxylase)라는 특별한 단백질이다. 이 효소는 CO₂를 PEP에 결합시켜 옥살산을 만들고 이것이 세포 내 안정한 C4 화합물인 말산으로 전환되게 한다. 즉 최초의 탄소고정 산물인 탄소 4개로 이루어진 화합물이 바로 이것이다(그림 2-4).

일반적인 C4 식물이 공간적으로 C4 대사(엽육세포에서 진행)와 C3 대사(크란츠 구조 속의 관속초세포에서 진행)를 구분해놓았지만, 선인장 식물의 경우에는 C4 대사와 C3 대사를 시간적으로 구분해놓았다. 즉 선인장 식물은 밤에는 C4 대사를 통해 말산을 만들어 축적해놓고, 낮에 말산에서 CO₂를 방출해 암반응인 캘빈-벤슨 회로를 돌린다(그림 2-6). 이런 대사를 가진 식물을 CAM(Crassulacean Acid Metabolism) 식물이라 한다.

비유하자면 CAM 식물은 낮에 숨을 멈추고 있다가 밤에만 숨을 쉬는 대사를 선택한 것이다.

현존하는 현화식물의 약 3퍼센트만이 C4 식물이지만 전 지구적 1차 생산량의 23퍼센트 정도는 이들이 생산한다.

황금률을 대표하는 수치는 0.618이다.¹⁷ 르네상스 시대를 대표하는 천재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인체를 그릴 때 황금률에 따라 그릴 것을 권한다. 그게 가장 아름다운 형상이 되기 때문이다. 황금률이란 전체를 둘로 나누었을 때 부분 간의 비율이 전체와 긴 길이 간의 비율과 같아지는 분할을 말한다.

피보나치 수열이 각도에 적용되면 황금각이 된다. 황금각이란 137.5도 간격으로 배열되는 각도를 말한다. 부분 간의 각도 비율이 전체와 큰 각의 비율과 같아지는 각도가 137.5이기 때문이다.¹⁸ 나선형 돌려나기 배열 방식을 가진 잎은 정확히 137.5도 각도로 새로운 잎이 형성된다. 이렇게 형성되는 생리학적 이유는 식물호르몬 옥신의 작용 방식 때문이다.

수관기피란 그림 2-13에서 보는 것처럼 나무의 꼭대기 부분이 서로 겹치지 않게 가지가 서로 피해서 자라는 현상을 말한다. 수관(crown)이란 나무가 하늘을 만나는 윗부분의 형태를 말하며, 기피(shyness)란 수관의 성장 형태가 수줍은 듯 이웃 나무에 닿지 않게 자라는 현상을 일컫는다. 이렇게 서로가 남의 영역을 침입하지 않음으로써 하늘이라는 공간을 나무들이 사이좋게 나누어 쓴다. 상호존중하고 배려하는 최소한의 예의를 나무들에게 배운다

잡초의 줄기는 하늘 방향으로 성장하고, 뿌리는 땅 쪽으로 성장하는 현상. 이를 굴지성이라 불렀다. 최근에는 땅이 생장반응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중력에 의해 생장반응이 일어나는 것이니 굴중성(gravitropism)이라고 한다.

줄기세포와 뿌리세포가 옥신에 대한 반응을 정반대로 하기 때문이다. 줄기에서는 세포들이 옥신 농도가 높아지면 세포신장이 증가하는 반응을 보인다. 이 때문에 줄기에서는 위쪽보다 아래쪽 신장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고 그 결과 하늘 방향으로 식물이 생장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줄기와 뿌리가 중력에 대해 서로 반대되는 생장반응을 보이는 것은 옥신에 대한 반응이 조직마다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식물호르몬이 서로 다른 조직에서 서로 다른 기능을 하는 것은 식물호르몬에서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으로, 동물호르몬과는 다른 식물호르몬의 특징이기도 하다.

굴광성의 원리도 옥신이 관여하는 같은 생리적 현상이다. 식물의 줄기가 빛을 한쪽 방향에서 받으면 줄기 끝부분에서 옥신 호르몬은 빛의 반대 방향, 즉 음지면(shade side)을 따라 아래쪽으로 수송된다. 옥신은 줄기세포에서 세포신장을 촉진시키니, 당연히 줄기 음지면의 세포신장이 상대적으로 크게 일어나 줄기가 음지면의 반대 방향, 즉 빛이 오는 방향으로 휘어지며 생장하는 것이다

캐나다 맥ма스터 대학의 수전 더들리(Susan Dudley) 교수이다. 이 분야를 개척한 그녀는 서로 친척 관계에 있는 식물들을 심으면 서로 그렇지 않은 같은 종의 식물을 심었을 때와 사뭇 다른 뿌리 성장 패턴을 보여준다고 발표하였다. 즉 친척 관계에 있는 식물들은 뿌리가 자신의 영역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얌전히 자라는 반면(마치 지상부의 수관기피 현상처럼) 서로 친척 관계가 아닌 식물들의 뿌리는 영역이 없이 서로 뒤엉켜 자란다는 것이다. 즉 친족 간에는 없던 뿌리들 간 경쟁이 서로 남일 때는 치열하게 일어난다는 주장이다. 이후 여러 종의 식물에서 유사한 뿌리 간 친족선택이 보고되었다.

최근 과학전문지 《사이언스》에서는 특집 기사²⁹로 지하의 네트워크라는 글을 실었는데 이에 따르면 식물은 질소와 인의 80퍼센트를 곰팡이에서 얻는다고 한다. 놀랍게도 광합성을 통해 고정되는 탄소마저도 무려 4퍼센트 정도는 곰팡이에서 얻는다니 지하세계에 우리가 잘 모르는 엄청난 일이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아일랜드 대기근은 정치적으로는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었던 옥수수, 밀의 관세 때문에 영국에서 아일랜드로의 식량 지원이 원활하지 못했던 탓이 컸다. 다른 한편으로 이 사태는 우리 인류에게 농업기술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 교훈을 안겨주었다. 첫째는 단일품종을 재배하는 농사의 위험성이고, 둘째는 식량 다양화의 필요성이다. 아일랜드는 남미 페루 지역에서 개발된 감자를 대기근 100년 전에 들여와서 주식으로 삼았는데, 이때 들여온 감자는 'Irish Lumper'라 불린 단일품종의 감자였다. 이 감자에 곰팡이와 유사한 종류의 병원체인 난균류(*Phytophthora infestans*)가 감염되자 대책 없이 전국적으로 잎마름병이 확산된 것이다(그림 3-7). 감자 대기근은 감자 품종이 다양했더라면, 그래서 난균류에 대한 저항성을 가진 감자 품종을 빨리 발견해내었다면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노

먼 블로그 박사가 녹병 저항성 야생밀을 멕시코 북부 지역에서 찾아내면서 밀에 확산되던 녹병을 잡아낸 것처럼 말이다. 16 난균류에 대한 저항성을 가진 감자 품종은 나중에 발굴되었고 결국 1852년경에 이르러 감자 품종의 대체를 통해 잎마름병의 폐해를 극복하게 된다. 한편으로 감자라는 한 종류의 식량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았더라면 대기근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동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식물이 선택한 방법이 잎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런데 식물의 잎에는 많은 영양분이 들어 있으니 이를 재활용하는 과정에 단풍이 생기는 것이다.

김혜남, 생각이 너무 많은 어른들을 위한 심리학

51쪽. 놀랍게도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에 대해 신경쓰지 않는다.

모든 사람은 각자 자기만의 사연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53쪽. 설사 누군가 당신에게 인상을 찌푸렸다고 해도 당신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59쪽. 인간을 규정짓는 가장 중요한 것- 설사 불행해지는 한이 있어도 나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실행할 자유

61쪽. 생각할 게 많고 고려해야 할 게 너무나 많은 어른의 삶. 그러나 세상에는 무수한 종류의 어른이 있고, 그들은 각자 자기 방식을 유지하며 서로 어울려 살아간다. 그러니 당신은 당신의 짐을 기꺼이 짊어지고 당신의 인생을 살아가면 될 것이다.

63쪽. 라이프코치. 어니 젤린스키 <모르고 사는 즐거움>⁴ : 걱정의 90퍼센트는 해봐야 아무 소용 없는 걱정

- 66쪽.
- 1) 내가 걱정하는 문제를 정확하게 써본다
 - 2)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써본다.
 - 3) 무엇을 할지 결정한다.
 - 4) 결정한 대로 즉시 실행한다.

74쪽.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의 선택이 우리 삶의 질을 결정짓는다. 고통스러운 상황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것에 대해 괴로워할지 말지는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

79쪽. 삶에는 우리가 어찌지 못하는, 그대로 감내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다. 누구라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이 그중 하나요, 이미 지나가버린 과거와 내가 어찌지 못하는 타인의 마음이 여기에 속한다.

82쪽. 라인홀드 니버의 기도문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용기를, 그리고 그 둘의 차이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87쪽. 그러니 감정은 항상 평온해야 정상이며, 평온하지 않으면 비정상이라는 착각에서 이제 그만 빠져나와 어떤 감정이든 온몸으로 느껴보라. 모든 감정은 옳으니까.

89쪽. 예기치 않게 불행을 맞닥뜨린 사람들은 종종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라고 묻는다. 두 가지 큰 맹점:

1.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이나 질병을 처벌로 받아들인다.
2. 무의식 중에 불행은 남들에게나 일어나는 일이며 자신은 거기에서 벗어나 있는 거라고 믿는다는 것.

90쪽.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 그게 바로 인생.

150쪽. 이처럼 이론적으로 현재 자신이 겪는 불안과 두려움이 과거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알게 되는 것을 ‘지식적 통찰’이라고 한다.

‘감정적 통찰’ : 문제의 원인에 대해 가슴 깊이 느끼며, 그 동안의 슬픔과 두려움이 쏟아져 나오는 순간 감정적 통찰이 우리를 변화시킨다.

151쪽. 마음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기에 지금과 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되는지 자세히 알 필요가 있다.

185쪽. 그게 쉬운 일이었다면 그 속에서 아무런 즐거움도 얻을 수 없었을 거다. 그러니 계속해서 그림을 그려야겠다 -반 고흐

191쪽. 나이 들수록 자신이 좋아하고 인정하는 사람들과만 관계를 맺으려하는 사람들도 있다. 편협한 관계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은 대부분 자신감이 부족하다. 이들은 인정할 수 없는 사람과 원만한 관계를 맺는 것은 굴복의 개념으로 받아들인다.

198쪽. 의존에 대한 두려움이 심한 사람이 있다. 그들은 누군가에게 의존하게 되면 상대방이 하라는 대로 해야만 하고 결국은 자기 자신을 잃어 버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에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을 못 견딘다. 그들은 대부분 자존감이 낮다.

199쪽. 독립과 고립은 혼동해서는 안 된다.

226쪽. 롤프 셀린 <나는 단호해지기로 결심했다>⁵

227쪽. 아무리 불쾌한 대우를 받았더라도 상대방을 비난하지 말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만 말하는 게 좋다.

239쪽. 상대에게 안녕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떠난 사람과 나를 묶어 놓았던 끈을 푸는 마지막 작업이다. 서로가 서로에게서 자유로워지는 작업인 것이다.

263쪽. 얹지로 잊어버리려 애쓰지 말았으면 좋겠다. 잊어버린 사람을, 잊어버린 무엇을 잘 떠나 보내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면 굳이 애쓰지 않아도 이별한 대상에 대한 기억들이 당신의 마음 속에 켜켜이 쌓이게 될테고 나중에는 가끔씩 추억들을 떠올리며 당신의 오늘을 돌아보게 될 것이다.

310쪽. 마지막으로 우리는 서로에게 끊임없이 상처를 주고 받을 수밖에 없는 지극히 인간적인 존재임을 인정해야만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에게 상처를 최소한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이다.

김미향, 탈서울 지망생입니다

부모님 댁은 평범한 아파트였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은 디테일이 있었다. 집 밖으로 나가면 솔솔 부는 바람을 맞으며 아침저녁 거닐 수 있는 천변이 있고, 그 천변에는 사시사철 다른 꽃들과 물고기 사냥을 하는 흰색 왜가리를 볼 수 있었다. 근처엔 등산이 가능한 숲과 굽이굽이 아름다운 자전거 둘레길이 있었다. 자연만 있는 게 아니었다. 걸어서 10분 거리에 도서관, 미술관, 수영장, 큰 공원, 예쁜 카페들이 있고 20분쯤 걸으면 영화관과 병원과 마트들이 나왔다. 기차역과 버스터미널도 30분이면 갈 수 있었다.

걸어서 한 시간 이내면 시내 한 바퀴를 돌 수 있고 웬만한 곳들도 차로 10분 거리면 오갈 수 있는 생활권, 인근에 산과 강을 편하게 접할 수 있는 곳. 지방의 인구 10만 명쯤 되는 소도시가 보통 이런 풍경일까.

왕복 세 시간. 서울과 경기도의 웬만한 대중교통을 타는 것보다 서울과 전북을 오가는 KTX가 출퇴근하기 편할 것 같았다. 지정 좌석에 앉아 노트북도 하고 휴대폰으로 간단한 문자나 이메일 같은 업무도 하면서 말이다.

그때 시도한 라이프 패턴으로 분명히 알게 된 게 있다. 하나는 서울을 벗어나면 내 삶의 질이 올라간다는 사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거실의 소파와 TV도 누리지 못한 채 사는 서울에서의 삶을 결코 지속할 수 없다는 것. 이 두 가지를 선명히 알게 되었다.

이렇게 첫 대면에서 '정읍'이란 프레임으로 날 보는 사람들과 만난 사회생활 10년. 한번은 회사에서 "시골에서 온 애"라는 말을 들었다. 분명 나쁜 말이 아닌데 그다지 유쾌하지 않았다. 그 이유가 뭐였을까. 모든 것이 대도시 중심으로 돌아가는 나라에서 '시골에서 온 애'는 나를 뭔가 소수자의 자리에 위치하게 했고, 나에게 비주류적 감수성을 선물해주었다. '강남키즈', '목동키즈'로 자란 내 또래 직장인들 속에서 난 웬지 주류에서 한발 떨어져 있는 사람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었다.

서울에서 열악한 주거 여건을 감수하며 높은 생활비를 버티는 삶.

이렇게 첫 대면에서 '정읍'이란 프레임으로 날 보는 사람들과 만난 사회생활 10년. 한번은 회사에서 "시골에서 온 애"라는 말을 들었다. 분명 나쁜 말이 아닌데 그다지 유쾌하지 않았다. 그 이유가 뭐였을까. 모든 것이 대도시 중심으로 돌아가는 나라에서 '시골에서 온 애'는 나를 뭔가 소수자의 자리에 위치하게 했고, 나에게 비주류적 감수성을 선물해주었다. '강남키즈', '목동키즈'로 자란 내 또래 직장인들 속에서 난 웬지 주류에서 한발 떨어져 있는 사람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었다.

시내에서 부모님 댁까지는 걸어서 30분 정도인데, 버스를 타기엔 애매하다. 집 앞까지 바로 가는 노선은 없고 빙 빙 돌아 40분 정도 걸리기 때문이다. 그것도 버스가 한 시간에 두어 번밖에 오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든 상관은 없지만 부모님 앞에서 패배자가 되고 싶진 않았다.

누워 있던 나는 이불을 박차고 갑자기 일어났다. 내 말이 그 말이었다. 한 번 타면 만신창이가 되는 지옥철을 벗어나고 싶고, 비좁은 자취방을 벗어나고 싶고, 덜 바쁘고 덜 쫓기는 곳에서 살고 싶은 것이지, 그렇다고 내가 농사를 짓고 싶은 것은 아니었다. 조금 넓고 쾌적한 곳에서 덜 치이는 삶을 원할 뿐이었다. 텃밭을 가꾸며 전원생활을 하고 싶다는 뜻이 아니다. 일터에서 번 돈을 착실히 모아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갈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곳에서 소중한 일상을 꾸려나가고 싶다는 마음, 나의 탈서울 동기는 그 정도였다

서울을 벗어나더라도 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조금은 많았으면 좋겠는데. 역시나 지옥철을 견디든가, 아니면 농사를 짓든가. 우리에게 놓인 선택지는 열탕, 아니면 냉탕뿐이었다

역시 일이 문제였다. 생계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다시 서울로 유턴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는 탈서울의 핵심은 지방에서 일자리를 구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했다.

살 곳을 알아보다 문득 내가 계속 서울과 교통이 원활한지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난 지방에 가서 살 거야'라고 결심하고 집을 알아보면서 왜 자꾸 KTX 기차역 근처에서 집을 알아보고 있는 건가. 마음은 여전히 서울을 떠나지 못하는 듯했다. 찬찬히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니, 지방에서 직장을 못 구할 경우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다. 어차피 일자리가 죄다 서울, 적어도 수도권에 있을 텐데. 백수를 할 게 아니라면 수도권에 있는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지방에서 살 방법이 없는지 자꾸 생각하게 되는 것이었다.

어디든 사람은 결국 적응하게 마련이라는 것, 기간을 충분히 두고 여유롭게 진행하면 분명 더 나은 삶이 있다는 것,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꼭 알리고 싶다고 그는 전했다.

그는 자신이 서울에서 경험한 것들을 부산에서 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싶다고 했다. 서울과 부산 사이에서 격차를 느끼는 순간이 많았던 그는 서울에서 만난 스타트업 창업 지망생들과 머리를 맞대며 준비를 했다. 지역에서 차린 책방이 어떻게 하면 온라인 플랫폼으로 새로운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는지 섬세하게 구상했다. 이름 씨는 도서관 사서로, 민간법인의 서점에서 북 매니저로 일하며 자신의 창업 아이템에 어느 정도 길이 보인다고 생각하자, 탈서울을 진행한 것이다.

더 많은 일자리 기회가 있었고, 더 자주 문화생활을 누렸으며, 2,000만 원의 소득을 벌 수 있었던 곳이 서울이라고 말한 이름 씨가 계속 눈에 밟혔다.

양양에서 2년을 넘게 지낸 지원 씨는 이사한 후 시야가 넓어진 걸 실감하곤 한다. 무엇보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다고 느낀다. 다양한 삶의 방식이 있다는 걸 피부로 느끼게 되었다.

크리스틴 마인저, 졸렌타 그린버그, 책 대로 해봤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어쩌면 그는 변화를 가져다준다는 이유로 자신에게 속삭였던 멋진 말들을 믿을 필요가 없었을지도 몰라요. TV에서 흘러나오는 광고 소리, 라디오에서 들리는 노래 그리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자신에 대해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 말해 주는 세상의 온갖 소음처럼 그냥 나를 스쳐 지나가게 내버려 둬도 되었을지도요.

명상 마니아들에게 명상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할 때마다, 그들은 제 명상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는 명상과 맞지 않는다고 아무리 말해도 명상은 절대적으로 옳다고 외쳤지요. 몇 번이나 해 봤지만 별로였다는 제 말도, 그들에게는 그저 공허한 메아리로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을 하기 전에 몇 번이고 더 해 봐야 한다고 했거든요.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다들 싫어해.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네 마음에 평화가 찾아올 거야.”

맨손의 이야기에 따르면 우리는 일어나는 일을 모두 통제하지는 못하지만, 그 일을 해석하는 방법과 반응하는 자세는 통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간단히요! 우리가 살면서 책임지기를 선택할수록 더 많은 소유권을 느낀다는 거였지요.

이런 생각은 하지 맙시다. 다른 사람의 행동과 믿음 때문에 자신을 비난하는 것은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크리스틴과 저도 느꼈듯 그것은 상당히 자기 파괴적인 생각입니다.

제 친구이자 <책대로 살아보기>를 기획한 카메론 드류스는 언젠가 이런 현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무조건적인 용서와 짐스러운 불행 사이에는 많은 선택이 존재합니다. 굳이 둘 중 하나를 고를 필요는 없어요.”

자기 계발서로 베스트셀러를 기록한 저자들을 포함해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에게 ‘생각대로 된다’ 법칙은 자신들이 그 위치에 있어야 마땅하다는 확신을 주니까요. 또 승자들이 “나는 최고의 승리를 거둘 태도를 지녔기 때문에 승리했다”고 말할 수 있는 우주의 법칙을 만들어 주고요. ‘생각대로 된다’ 법칙은 삶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사람들이 자신의 장점을 완전히 간과하고 단지 의지의 힘으로만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믿게 합니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이 그들보다 덜 성공한 다른 사람의 실패를 당당히 비난할 수 있게 하지요.

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책을 붙잡고 있는지 알 것 같아. 가끔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이 단지 땅을 가리키는 화살표 그림을 들고만 있어도, 그 자체가 어딘가로 향하는 길을 가리키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니까.

로이스김, 구글 임원에서 실리콘밸리 알바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 다닐 때처럼 시간 계획을 세우고 지키자. 회의, 업무 처리, 보고 등 하루 일정을 기록했던 다이어리를 계속 사용하길 권한다. 운동, 식사, 청소, 명상, 독서, 공부, 봉사 같은 일상적인 일이라도 언제 할 것인지 계획하고, 그것을 지키며 하루를 보내야 한다. 시간을 의식하지 않으면 하루는 순식간에 흘러가버리기 때문이다.

사람과의 만남을 피하고 혼자 웅크리고 있을수록 자격지심은 커진다. 나는 자신감이 없을 때 자신감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 진짜 자신감이 생긴다는 걸 경험으로 깨달았다.

나는 거대한 슬픔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역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다. 잠시 숨을 고르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떠올려보는 것이다. 계획한 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을 때, 화내기보다 그 속에서 기회를 찾아보자. 뜻밖의 경험을 할 수 있고 생각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

무엇보다, ‘이 정도 일로 내 인생이 망할까 봐?’라는 배짱 두둑한 긍정적인 생각. 이것이 우리의 멘탈을 강하게 하고 슬픔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이다. 내 인생은 내가 주도한다, 인생에서는 내가 ‘갑’이다!

새로운 일을 많이 해보세요. 서툰 일을 자청해서 해보세요. 그건 나의 서투름을 마주하겠다는 용기이고, 잘될 때까지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새로운 일 앞에서는 겸손한 마음이 생깁니다. 처음부터 일을 능숙하게 해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에 후배가, 동료가 일이 서툴 때 이해하고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꾸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것이 실패하던 성공하던 말입니다.’

매일을 한결같이 타이트하게만 산다면 ‘내가 무슨 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렇게 숨도 못 쉴 정도로 빽빽하게 사는가?’ 라며 회의가 들 수 있기 때문이다. 지속 가능하지 않다. 나는 한 달에 두 번 정도 늘어지는 날을 갖는다.

연봉을 많이 받는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은 그만큼 힘든 일을 처리해야 한다. 아랫사람이 방어막 역할을 하고 윗선은 우아한 일만 하는 건 공정하지 않다.

능력을 뛰어넘는 일이 버겁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하느라 지치고 힘들어 다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었다. 하지만 속도를 늦출지언정 멈추지는 않았다. 아주 작게라도 계속하는 것과 멈춰버리는 것의 차이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번 멈추면 다시 시작하는 게 겁난다. 그래서 영영 포기해버리고 만다. 하지만 조금씩이라도 움직이면 언제든 속력을 낼 수 있다. 달리기 위한 준비상태가 되는 것이다.

시니어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한지도 5년이 되었다. 그동안 5만 인분 이상의 배식을 했고 그만큼 나도 이 지역에 깊게 뿌리내리는 기분이다. 미국에 처음 정착하는 사람들에게 늘 해주는 말이 있다. 이곳에 온 게 손님 같고, 외국인 같고, 출장 온 것 같으면, 자원봉사를 해보라고. 소속감을 갖게 되는 지름길이다.

상황에 따라 엎치락뒤치락하는 감정의 기복을 극복하려면 생각을 멈추고 몸을 움직이면서 마음속의 복잡함을 밀어내야 한다. 생각이 깊어지면 우울과 침체에 빠지기 쉽고, 새로운 일을 시작할 용기는커녕 하던 일을 계속하고자 하는 의지까지 사라져버린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일상의 루틴'이 이럴 때 유용하다.

이렇게 좋은 에너지를 나누려면 첫째, 내 몸이 피곤하지 않아야 한다. 피곤할 때는 친절한 말 한마디가 쉽지 않다. 수없이 강조했지만 체력 관리는 정말 중요하다.

사람에 대한 호기심이 있어야 한다.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할까? 회사 밖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살까? 등을 궁금해하고, 이 주제에 대해 대화하다 보면 상대와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누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 호기심과 관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과 '내 인생에서 스쳐지나갈 사람인데 뭐' 하면서 무관심한 태도로 사람을 대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독불장군처럼 일하는 사람은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한다.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모든 일을 혼자 해낼 수 없다는 것을 오랜 사회생활을 통해 배웠다.

물론 게으름을 피워서 칭찬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 크루도 가끔 있지만, 잘 살펴보면 장점이 하나씩은 꼭 있다. 칭찬에는 상대방을 인정하는 마음이 내재되어 있다. 상대방의 좋은 면을 보고 가치를 인정하는 만큼 자기 자신의 존재감도 높이 올라간다.

변화의 폭이 작다고 해서 힘도 작은 것은 아니다.

20대에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마흔 살까지만 일하고 그다음부터는 NGO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또 내가 좋아하는 트레킹과 운동을 하면서 살아야지' 했다. 그런데 그 마흔 살이 너무 빨리 왔다. 아니, 30대가 너무나 빨리 가버렸다는 게 더 맞는 표현일 것이다.

퇴직 후에도 약간의 경제활동을 지속하는 '반퇴' 라이프스타일이 많이 얘기되고 있다. 이번 캡이어 프로젝트를 통해 퇴직 후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매달 조금씩이라도 정기적인 수입이 있어야 사람들에게 인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실천적 답을 얻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인간관계도 대부분 회사 안에서 맺게 된다. 가족만큼이나 오랜 시간을 함께 마주하는 사람이 직장 동료들이기 때문에 일뿐 아니라 개인적인 소통도 많이 하고, 그만큼 깊은 우정도 다질 수 있다. 하지만 회사라는 공통분모가 사라지면 그런 관계도 서서히 무너지기 마련이다. 같은 직장에 근무할 때는 둘도 없는 친한 사이였지만 퇴사와 동시에 데면데면해진 친구가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은퇴도 퇴사와 비슷하다. 그러므로 소속된 회사가 없어졌을 때 내 사회 활동을 어떻게 지속할 것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계획하지 않은 변화가 내 인생을 지배하고 있을 때 불안한 것은 당연하다. '이전으로 빨리 돌아가야 하는데' 하고 마음에 조바심이 난다. 구글을 그만두고 1년 동안 개인 프로젝트를 마음껏 해보자고 결심했다. 그런데 시간이 왜 이리 빨리 가는지 눈 깜짝하면 3개월, 고개를 들어보면 6개월이 뭉텅뭉텅 지나갔다.

'사이드 허슬side hustle'이란, 직장을 다니면서 본업 이외에 재미있는 일을 하는 것을 말한다.

케이티 크리머, 내 탓 멈추기의 기술

오늘부터 당신의 부정적인 사고방식과 혼잣말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 자신의 자의식에 해를 끼치고 있음을 인정하고 당신이 사용하는 언어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한다.

생각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거나 중립적인 '정서가valence(情緒價; 정서의 긍정 및 부정 정도-옮긴이)'를 가질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자신, 타인, 세계를 향한다. 생각의 종류에는 걱정, 가정, 인상, 개념, 아이디어, 인식, 질문, 의견, 신념, 이야기 등이 포함된다. 혼잣말은 우리 자신을 향한 말이나 생각으로, 문학작품의 내적 독백과 비슷하나 세익스피어의 재능이 빠진 것이다.

혼잣말은 또한 우리가 특정한 생각이나 경험에 반응하여 사용하는 의식적인 행동으로, 자기 패배적인 비판에서부터 자기 친절을 표현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스펙트럼이 광범위하다. 반사적으로 발생하든 더 의식적으로 사용하든, 부정적인 혼잣말은 우리의 자의식, 자부심, 자존감을 손상한다.

우리의 뇌는 부정적인 자극을 더 쉽게 인식하고, 우리 역시 이러한 부정적인 자극에 연연하게 된다. 우리가 부정적인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수록, 우리 마음은 부정적인 사고의 순환을 영원히 지속시키며 그 중요성을 과장한다. 우리의 마음은 종종 우리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현실을 왜곡한다.

당신의 마음이 판단하기에 바쁘면 호기심은 자연스럽게 찾아오지 않는다. 그러나 당신이 늘 호기심을 갖고 반응하게 되면, 당신은 어디에도 비할 수 없는 초능력을 얻게 될 것이다. 수년간 꾸준히 수련한 결과 이제 내 마음의 기본 언어는 '호기심'이고, '판단'은 거의 사라졌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면 당신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신에게 가혹하게 구는 '다른' 사람들을 볼 때면 우리는 그들의 처지에 연민을 표할 뿐 아니라 그들의 가혹하고 잘못된 자기 판단을 단호하게 지적한다. 우리는 그들의 생각에 문제가 있다고 확신하고, 자신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사고방식에 그들이 고집스럽게 매달리는 것을 보며 당황하기도 한다.

생각이 떠오를 때, 감정적인 요소가 있는지 자문해보자. 감정이 내게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생각을 왜곡하고 조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

생각 속의 '나'와 실제 나 사이에 거리를 유지한다. "실패할 거야"라고 말하는 대신 "실패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라고 말해보자. 뇌가 부정적인 생각에 휘말리지 않도록 도울 것이다.

우리 기본작동신경망의 대부분은 부정적인 생각과 두려움에 깊이 잠겨 있어, 마음의 휴식 상태는 사실 평온함과는 거리가 멀다.

마음에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은 당신의 생각이 오가는 것을 관찰하고, 감정 상태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 차리고, 긍정적, 부정적, 중립적인 정서에 주목함으로써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의 순간 없이는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 지금 이 순간은 우리의 자기 인식을 키우는 순간이다.

우리가 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는 습관을 지니고 있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이해하면 무력감을 강화하는 대신 회복력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는 것이 당신에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통제감을 주는가? 최악의 결과를 상상하면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고, 실제 그 일이 일어나도 당신이 망가지지는 않을 거라고 믿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믿으면서 안일함에 빠지는 것이 두려운가?

패배를 상상하게 될 때마다 스스로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는 법을 연습하자. 우리가 결과에 대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다는 것을 더 쉽게 확신하게 될 것이다.

당신이 언제든 '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어'라는 생각이 든다면, 다음 질문에 답해보자.

"일어난 일에 대한 명백하고 확실한 사실들은 무엇인가?"

인식, 의견, 판단은 배제하고 "현실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물어보자. 억지로 하지 말고, 아무렇지 않게 "그래"라고 답하자. 조금이라도 다른 어조를 들으면, 나는 내담자들에게 다시 말하라고 요청한다. 마지막으로 "그래, 그건 내 현실의 일부야"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짠!

'해야 한다'는 현재보다 더 나은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며, 우리는 변화를 향해 나아가지 않은 것에 대해 자신을 스스로 비판하게 된다. 종종 '해야 한다' 발언은 이상적이고 달성할 수 없어서, 우리는 더 불안해지고 열등감과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

때로는 ‘해야 한다’가 당신의 요점을 전달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일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신 자신을 자책하는 데나 당신이 하지 않은 일에 대해 반추하기 위해 사용할 때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 진심으로, 그러면 안 된다.

온라인으로 주변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볼 기회가 늘어나며 현실은 왜곡되고 자아 인식을 악화시켰다. 우리는 자신의 최악의 버전 옆에 우리가 집착하는 것에서 ‘예상되는’ 최고의 버전을 놓고 비교하는 경향이 있다.

당신의 성장에 신경 쓰자. 사기를 꺾는 ‘비교’의 해독제는 당신이 진정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진정성이 느껴지는 본질적인 가치를 파악하고, 자아실현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타인이 행복하다고 해서 내 몫의 행복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타인이 성공한다고 해서 내 몫의 성공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누구나 행복해지는 파이 한 조각을 먹을 수 있다.

일방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법을 연습한다. 당신의 생각이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인정하자. 높은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부엉이처럼, 높은 곳에서 생각, 감정, 감각의 흐름을 관찰하자. 판단하지 않으면 더 이상 당신의 신경계에 무언가가 나쁘다는 신호도 가지 않기 때문에, 경험에 대해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압박감도 없다. 생각을 전기와 같은 뇌의 단순한 현상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우자.

결혼식 날 비가 오기도 하고, 담배를 피지 않아도 폐암에 걸리기도 한다. 죄 없는 사람들에게 빌어먹을 나쁜 일들이 일어난다.

하지만 삶은 당신의 행복 따위는 개뿔도 신경 쓰지 않으며 우주에는 숨겨진 의도가 없다. 페마 초드론은 “인간으로서 우리는 답을 찾을 뿐만 아니라 그 답을 얻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답을 찾을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답으로 인해 고통받는다”라고 했다.

우리가 다른 결과를 얻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며 삶의 불공평한 순간을 곱씹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의 희생자인 양 행동하는 것은, 우리를 과거에 묶어놓으며 무력감을 조장한다. 우리가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고통 받는다는 교훈을 기억하자. 현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자유로워진다. 한마디로 평화는 우리가 인지한 ‘불공평’에 대한 우리 반응에 달려 있다.

현명하게 행동act하자. 당신이 냉대받았던 이야기를 계속하며 자신의 영향력을 포기하는 대신, 이제는 당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화를 내고, 분개하고, 또는 어떤 결과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할지에 대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자.

인간은 집단에 속해서 사람들의 존경과 신뢰를 얻을 때 생존할 수 있는 더 높은 진화적 기회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신경을 쓴다. 우리는 어떤 자질이 소속될 수 있는 가치가 가장 큰지를 배운다.

우리가 한 적 없는 일들은 이미 과거이고, 우리가 아직 하지 않은 일들은 미래다. 우리가 선택하는 행동이 우리가 가는 길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우리의 뜻과 관계없이 삶이 펼쳐지도록 만드는 끝없는 외부 요인들이 있다.

당신이 인생에서 원하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힘들다면, 다음 리스트를 머릿속에 떠올리자.

1. 모든 일에 나이 제한이 있다는 생각은 만들어진 개념이다. 모든 사람의 인생 행로는 고유하며, 다른 사람과 아무리 비교해도 바뀌지 않는다.
2. 나는 절대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이 ‘있어야 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나 자신에게도 그런 말은 하지 않을 것이다.
3. 과거를 바꿀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나는 지금까지 내 인생에서 하지 못한 일들을 받아들인다.
4. 인생 시간표에 대한 내 집착은 내 자아상, 그리고 내 가치가 사회에서 만든 특정 단계에 따라 정해진다는 믿음과 관련이 있다.
5. 나는 나만의 페이스로 목표를 달성하고 나만의 성공을 이룰 것이다.

인간은 누군가가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 최악의 경우, 정신 건강 문제와 싸우는 사람들(흔히 트라우마, 불안, 우울증 등의 병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공감이 부족한 탓에, 그들이 어떤 식으

로든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낙인을 찍어버린다. 무언가가 '망했다'는 우리의 인식은 대부분 불완전함을 존중하지 않고, 그것을 평가절하하며 비하하는 문화에서 나온 것이다.

L. 프랭크 바움, 오즈의 마법사

"내가 왜 너의 부탁을 들어줘야 하지?"

오즈가 물었다.

"오즈님은 강하고 저는 약하니까요. 그리고 오즈님은 위대한 마법사이시지만 저는 보잘 것 없는 어린 소녀일 뿐이니까요."

신미경, 나를 바꾼 기록 생활

쓸데없이 시간과 에너지를 잡아먹는 일에 신경 끄고, 걱정은 줄이고 최대한 몸과 마음, 정신이 쾌적한 일상을 살고 싶다. 그게 내가 결론지은 잘 사는 삶이다.

일 잘하는 직장 선배들은 엑셀을 자유롭게 사용했는데, 표로 잘 정리한 프로젝트 로드맵을 척척 내어놓는 선배들의 모습에 감탄하곤 했다. 그들이 업무를 잘하는 이유는 머릿속 생각을 뒤죽박죽인 채로 내버려두지 않고 모두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를 잘 만들기 때문이라 여겼다.

가볍게 살자, 필요한 것만 갖추고 자유롭게 살자, 그 이후 평온하게 살자, 대비하며 살자, 라는 꾸준한 의식 변화 속에서 스프레드시트는 생산성을 체크하는 도구를 넘어섰다. 나의 생활을 차곡차곡 접어 정리해둔 수납함이며, 과거와 오늘 그리고 미래를 예측·관찰하는 연대표이자 관심사에 따라 쌓은 지식을 큐레이션한 보물 창고이다. 마치 평행우주처럼 스프레드시트 안에는 주어진 시간을 알차게 사는 내가 기록되어 있다.

메모장은 정보의 정거장일 뿐 최종 목적지는 될 수 없다.

메모가 찰나의 불잡음이라면, 스프레드시트에는 무엇을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전략이 들어있다.

생계에 무리 없는 수입을 버는 사람이라도 얼마를 벌고, 어디에 얼마를 쓰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거나, 갖고 싶은 물건이 생기면 신용카드로 미래의 수입까지 당겨쓰는 생활이 만성화되면 가난에 이른다.

(...) 변하지 않는 건 '나의 무엇을 관리할 것인가'이며, 내게 가치있는 기록은 그 물음에서 출발한다.

돈 걱정 없이 살려면 수입의 절반을 저축하고, 계획적인 소비를 할 것. 미래의 기대 소득이 꾸준히 있을 것. 비상시에 꺼내 쓸 수 있는 자금이 넉넉할 것. 이 세 가지를 지키면 된다.

삶의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생생한 감각은 숫자의 흐름을 정리할 때마다 느낀다. '자산 관리부' 표를 살피며 돈에 대해 생각한다. 청구서 해결에 대한 한숨은 없다. 얼마를 모으고, 어디에 쓰고, 어떻게 투자할지에 대한 설렘이 있다.

언제나 모호함이 불안을 부른다.

돈 문제는 스프레드시트에 맡긴 채 나는 돈과 무관한 생각들로 하루를 채운다.

디뮤지엄 전시 <I draw : 그리는 것보다 멋진 건 없어>에서 알게 된 로봇을 그리는 아티스트 '소라야마 하지메'의 말이 잊히지 않았다. 삶의 1순위는 그림이고, 이를 위해 체력 단련을 한다는 그의 '좋아하는 일' 중심의 삶. 좋아하는 일이란 삶의 의미와도 맞바꿀 수 있는 말 아닐까. 무엇을 위해 밥을 먹고, 아침에 눈을 뜨는지 분명하길 바랐다.

오랫동안 나는 진정한 삶이 곧 시작되리라고 믿었다. 그러나 내 앞에는 언제나 온갖 장애물과 먼저 해결해야 할 일들이 있었다. 아직 끝내지 못한 일들과 바쳐야 할 시간과 갚아야 할 빚이 있었다. 그런 다음에야 삶이 펼쳐질 것이라고 나는 믿었다. 마침내 나는 깨닫게 되었다. 그런 장애물들이 바로 내 삶이었다는 것을.

_알프레드 디 수자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세상을 사는 안목을 길러준다.

그다지 관심은 없어도 살아가는 데 필요하다면 눈을 크게 뜨고 집중한다. 자립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내게 배움은 가장 적은 투자로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다. 당연히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가 될 순 없지만, 일을 맡길 때 전문가와 기본적인 말이 통할 정도의 상식을 쌓는 것이 내가 원하는 수준이다. 재미있어 보여서, 필요해서, 반쯤 억지로 하는 모든 배움은 생각의 안티에이징 비법. 배우고자 하는 의지를 지킨다.

책 『오늘부터 나는 최고의 컨디션』⁶에서 찾은, 늘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하는 현대인에게 관계 맷기가 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새로운 분야를 배울 때도 적용된다. 많이 만날수록 친해지고, 많이 해볼수록 익숙해진다는 당연한 사실은 훈련의 기본이다. 더 잘하고 싶으면 훈련의 질을 올려야 하지만, 하루에 해내는 모든 일에 정성을 쏟을 수 없기에 나의 훈련 범위는 오늘도 만났는지, 그래서 친해졌는지가 중요하다.

나를 관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눈치를 살필 필요도 없고, 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율적인 상황은 공교롭게 자유롭지 않다. 질서와 규칙이 없는 인간은 쉽게 망가진다. 주어진 모든 시간을 정성스럽게 사용하고 싶고, 여유로운 만큼 시간의 그물을 넓게 펼쳐 많은 물고기를 낚는 하루를 만들자면 가이드가 필요했다.

생산은 소비와는 다른 차원의 즐거움이다.

요리가 손에 익은 지금은 사과, 식사빵, 여러 채소처럼 정기적으로 사는 식료품과 모아놓은 레시피 중 꼭 따라 하고픈 것 한두 가지를 정해 일주일치 장을 본다. 한 주 동안 냉장고가 3분의 2 정도 빌 때까지 있는 재료를 이리저리 조합해 요리를 만든다. 예컨대 차가운 식사는 빵을 곁들인 샐러드로 채소밥을 먹고, 따뜻한 식사는 채소탕이다. 채소탕이라 이름 붙여본 일종의 전골 요리는 멀치다시육수에 쪄우로 간하고 여러 채소, 두부, 해산물을 넣어 데치듯 끓인다. 냉장고에 있는 온갖 채소를 맘껏 응용하는 방식은 심플 그 자체. 샌드위치도 즐겨 만든다. 곡물 식빵에 로메인을 가득 넣고 크림치즈 얹은 데친 새우와 토마토와 그린빈을 토핑으로 올린 후 레몬즙, 후추를 뿌려 완성한다. 한식 역시 메밀국수를 삶아 콩물을 끓고 오이를 얹은 것처럼 쉽게 만든다. 조리 과정이 복잡하지 않은 순한 채소 중심 요리는 시간 역시 아껴주니 즐겨 먹을 수밖에

스tan 겟츠의 모든 앨범은 계절과 상관없이 언제든 저녁 시간과 어울려서 많이 듣는다. 밤은 공상을 위한 시간이다. 지금을 벗어나 여기 아닌 다른 곳에 존재하기 맞춤인 순간. 미완성의 나의 소설에서 요리하는 주인공처럼 저녁식사에는 날씨와 상관없이 요리 준비부터 식사까지 줄곧 보사노바다. 지금을 사는 감각은 무척 커졌지만 어떤 이상적인 행복을 상상하는 법은 잊고 싶지 않다.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원하는 현실을 만들었음을 묵힌 소설의 한 귀퉁이에서 배웠다.

마음에 드는 옷만 사면 비슷한 스타일의 청바지 다섯장을 갖게 되지만, 계획적으로 옷을 사면 청바지, 반바지, 면바지가 각 한 장뿐이어도 고루 있기에 웃이 부족하다 여기지 않는 법이다.

최근에는 재미삼아 ‘내 소유물의 헤리티지heritage’라는 제목을 내걸고 오랫동안 사랑하고 있는 실용적인 소유물을 적어보았다. 가장 먼저 물려받아 쓰고 있는 약 20년 된 줄자와 재단가위가 적힌다. 추억이 깃든 오래된 물건은 아름답다.

두뇌 트레이닝이라는 그럴싸한 명분을 걷어내고 나면 나는 다른 이유로 학원을 찾는지도 모른다. 어쩌면 피아노 학원에 다니는 진짜 이유, 대화하고 싶기 때문이다. 나에게는 여러 종류의 대화를 얇게 나눌 사람이 필요하다. 누군가와 요리와 식재 채집에 대한 열정을 공유하고 싶고, 역사적 사건을 논박하는 재미도 있었음 좋겠다. 고미술의 아름다움에 대해 같이 찬양하고 싶고, 클래식에 적당히 열광하고 싶다. 대화가 통하는 사람과 있을 때 느끼는 외롭지 않은, ‘함께’라는 느낌이 얼마나 중요한지.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 완벽한 순간은 있고, 내가 목도한 기적을 잊고 싶지 않아서 적어둔다.

32. 자립은 내게 정말 큰 가치이고, 스스로 올곧게 선 사람들로부터 친밀감을 느낀다.

나를 이루고 있는 모든 요소가 잘 관리된다는 느낌이 좋아 하나씩 더해가다 보니 다양한 관리 시트가 생겼다.

덕분에 아침에 겨우 일어나던 내가 아침 운동을 습관처럼 하게 되었고, 세끼 식사를 잘 챙겨 먹고 꾸준히 걸었으며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등 컨디션 관리를 우선으로 두고 살게 되었다. 몸이 달라지니 삶이 달라졌고 긍정적인 변화를 느낀 후로 원하는 바가 있으면 스프레드시트를 가장 먼저 열고 생각을 정리했다. 단정한 삶의 시작이다.

이정섭, 내가 멸종 위기인 줄도 모르고

이루기 어려운 목표에 행복감을 올인하지 않고, 충분히 이를 수 있는 자잘한 것들에 분배하기. 그 자잘한 행복이 다가왔을 때 분명히 인식하도록 종이에 적어둔다. 노트에 촌스럽게 ‘좋아하는 것’들 목록을 적어두었다.

- 1 바다에서 수영하기
 - 2 야외에서 바람 쐬며 책 읽기
 - 3 프레드페리 피케 셔츠
 - 4 야키토리집에서 닭껍질구이와 하이볼 마시기
 - 등, 수십 가지 항목 중
- 행복감을 느끼는 순간 얼른 메모해둔다.

긴 시간이 지나도 기억나는 ‘장기기억’은 암호화로 이뤄진다. 사람뿐 아니라 먹은 음식, 겪은 활동 모두 마찬가지. 내가 만난 38,000명 중 어떤 이유로든 암호화된 이들이 바로 그 100명이다.

소심한 개복치 여러분께 좋은 소식을 하나 전하자면, 심리학은 특정 기억을 어렵게 떠올릴수록 다음부터 그 기억을 꺼내기 쉽다고 전한다. 마음속 연결망 중 어렵게 맺어진 것들은 오래오래 남는다는 말. 소심한 당신이 누군가와의 관계를 긍정한다면 그 경험은 당신 안에 쌓여 강렬한 에너지가 될 것이다. ‘느리지만 확실한 배움’이랄까.

서점에 가면 흔히 보이는 《간단히 ○○하는 법》류의 시원시원한 솔루션은 내가 쓸 수 있는 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런 걸 모르기 때문이다. 난 나미야 잡화점의 도둑들처럼 평범보다 모자란 쪽에 가까운 사람이다. 앞서 나가는 인재는 무슨, 그냥 죽을 때까지 세상 사람들 속에 끼여 살 수만 있어도 다행이라 여기는 소심한 소시민이다.

나는 독자에게 “습관을 바꾸세요!” “상대에게 당당하게 외치세요” 하지 못한다. 그러지 못할 것을 알고 있다. 나도 못 그러기 때문이다. 대신 다른 방안이 없는지 함께 고민해볼 것이다. 만약 없다면 함께 슬퍼할 것이다. 나의 부족함이 오히려 세상에 치여 사는 당신을 이해하는 동기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면접이란 한바탕 역할극이라 생각한다. 지원자는 지원자의 룰을 맡고, 심사위원은 심사자의 룰의 맡는다. 여기서 진실된 것은 꼭 입사하고 싶다는 지원자의 의지뿐이다. 면접에서 떨어지면 자책하는 것은 어쩔 수 없고, 또 한편 당연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 자책의 디테일이 세밀해야 한다. ‘난 왜 이렇게 못날까’가 아니라 ‘난 왜 캐릭터를 잘못 잡았을까’ 혹은 ‘난 왜 연기를 제대로 하지 못했을까?’ 이게 맞는 자책이다. 다음엔 이번 글과 반대로 내가 면접 심사위원이었던 경험을 다루기로.

딴 이야기지만, 예민한 탓에 한국 영화도 못 본다. 영화 속 폭력이 리얼해 고통스럽다. 원빈이 나오는 영화 <아저씨>를 보다가 시체를 트렁크에 담는 장면을 보고 심장 멎는 줄 알았다. 감정 이입도 너무 잘 돼 힘들 지경. 내 소심함을 사람들이 왜 모를까 고민하던 중 심리학 책을 읽고 정리해봤다.

상처받는 순간마다 난 이렇게 되뇌었다. ‘눈앞에 선 사람들은 광물이다. 말은 말일 뿐이고, 행동은 행동일 뿐이다.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 사람이 광물일 리 없고, 그들의 말과 행동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다. 하지만 사람을 돌처럼 보자는 자기기만은 자기 최면으로 이어졌고, 결국은 세상사를 대하는 내 모습 자체가 매사에 무감각한 사이코 패스와 비슷해졌던 것 같다. 막이 위낙 두꺼워지니 누굴 만나도 무덤덤하게 반응해 상처를 줬을 테다. 진심으로 반성했다. 지금도 반성하고.

“아이는 없으세요?”

“네. 와이프랑 전 아이를 낳지 않고 살기로 했어요. 둘만으로 충분히 행복하거든요. 아이를 낳아 기르는 즐거움이 있을 수 있다고도 생각해요. 대를 잇는 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고요. 내 삶이 끝나갈 때 나를 닮은 존재가 세상에 남아, 내가 못다한 세상 여행을 계속해나간다는 점이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겠죠. 하지만 할아버지 장례식을 치르고 남긴 유품들을 정리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괜찮습니다. 할아버지는 아흔이 넘어 돌아가셨거든요. 유품 대다수를 둘 데가 없어 결국 버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간은 자기 삶이 끝난 후에 무언가 남을 거로 여기지만 그렇지 않다. 시간이 갈수록 열어질 추억 몇 조각뿐. 결국 다음 세대는 그들의 삶을 살아갈 뿐이다. 이 생은 내가 살아내는 순간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다. 나도 와이프도 자기 인생을 충만히 채우는 걸 원하고 여기에 또 다른 존재가 들어갈 공간은 없다. 우리 판단대로 인생을 만끽하자. 그것이 인간으로 태어난…… 저기요? 듣고 계세요?”

누군가 물을 때마다 비출산에 이르게 된 내 진심을 꺼내놓았더니 아무도 다시는 출산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 북핵 문제든 비출산 문제든 진심만이 통한다는 진리를 깨닫게 됐다. 듣는 사람이 넌더리내는 느낌을 받는 건 오해일 테지.

남자라면 상황을 리드하고 터프하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을 것이다. 나 같은 소심쟁이 남자들은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텐데, 남자답지 못함에 십수 년 시달린 지금 감히 말하면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세상에는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방법이 있고, 당신에게 어울리는 방법은 따로 있다. 자신의 소심성을 부끄러워하며 억지로 남자다워할 필요 없다. 세상엔 사랑스러우면서도 전투적인 여성분들이 많으니까.

최승연, 주소 없는 삶에 대한 40가지 변명

젠장, 있잖아요, 현실은 왜 이리 복잡하고 어려운 걸까요? 도피도 못 해요. 어차피 여행은 지독한 현실이니까요. 하지만, 당신도 마찬가지지 않나요? 여행을 하든 말든, 당신도 저희와 다를 바 없이 당신의 상황에서 불안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럴 때 전 다시 눈을 감고 스스로 복기하며 겸손하게 질문해요. 도대체 우리는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사는 걸까? 라고요. 곰곰이 오늘도 생각하고 또 생각해요. 그런데요, 생각할수록 더 복잡해질 것 같지만 그러면 놀랍게도 불안이 사라지고 다시 용기가 생긴답니다. 피, 헛웃음과 함께요.

결코 알 수 없는 인간관계. 서로를 이해한다지만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알고 보면 몇 겹의 껍질이 가로막고 있는 인간 사이의 관계. 돈이 얹혀있을 때 그 껍질은 더 두꺼워진다. 진정 사람 사이에 제대로 된 커뮤니케이션이란 가능한 걸까? ‘모두 내 맘 같지 않다’는 그 진실이 무섭다. 쉽게 정을 주고 사람을 믿는 내가 미워진다. 상처는 상대가 줬는데 왜 내가 나를 미워해야 하는지.

이미 벌어진 일에 이유를 묻는 건 의미가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의 행로에 대해선 질문을 던져야 했다.

김이나, 보통의 언어들

실망이라 함은 ‘바라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상한 마음’을 뜻한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건 ‘상한 마음’이 아니라 ‘바라던 일’이다. 실망은 결국 상대로 인해 생겨나는 감정이 아니다. 무언가를 바란, 기대를 한, 또는 속단하고 추측한 나에게서 비롯되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 우리는 완벽하지 않은 고유의 모양으로 존재하는데, 타인을 바라보는 시각 또한 그렇다. 나의 경험치와 취향, 태생적 기질 등이 빚어낸 지극히 사적인 시선으로 서로를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기대’에는 아무 잘못이 없다. 보이지 않는 부분을 가늠하는 것은 인간의 특권이자 낭만이니까. 그게 없이 어찌 사랑에 빠지거나 연민을 느낄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기대’의 반대 의미는 무얼까. ‘오해’, ‘편견’쯤 되겠다. 둘 다 사적인 시각에서 비롯되지만, 기대에는 애정이 그 시작점에 관여를 하고 오해와 편견에는 그에 반대되는 감정이 관여했다는 차이만 있다. 때로 기대는 실망을 낳고, 오해나 편견이 호감으로 탈바꿈하기도 한다. 오래된 관계는 이 두 감정이 교차, 반복되다가 찾은 평균점 같은 것이 아닐까.

선을 긋지 않는다는 건, 모양이 없는 액체 괴물처럼 살아가라는 말로 들린다. 그러니까 선을 긋는 건, 여리고 약한 혹은 못나고 부족한 내 어딘가에 누군가 닿았을 때 ‘나의 이곳은 이렇게 생겼어’라고 고백하는 행위다.

사과를 받을 입장일 때를 떠올려보자. 상대가 ‘미안하다’고 말하는 순간은 마치 끓는 냄비가 올라간 가스레인지의 불을 끄는 것과도 같다. 더 끓일 의지는 없지만, 그렇다고 바로 식지는 못한다. 내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니다.

최대한 멀리 하되, 부득이 이를 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감정을 공유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 나쁜 것들이 그 사람의 전부는 아니라는 걸 굳이 상기하며 마무리짓는 것을 내 뒷담화의 룰로 정의해본다.

선물이 선물인 이유는 바로 이 포장에 있는지도 모른다. 물건의 정체성은 그저 쓰임에 있다. 그러나 포장이 됨으로써 비로소 물건은 단지 물건이 아닌, 주는 이의 마음이 담긴 무언가로 탄생한다.

서러움은 슬픔이 조금 더 헐벗은, 맨몸의 말 같아서 더 아리다. 누군가의 슬픔 앞에서 그 이유를 헤아리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서러움은 일단 따뜻한 집에 들여 밥 한 술 떠먹이고 싶은 마음이 든다. 그래서 나는 좀 더 주체할 수 없는 아픔을 표현하고 싶을 때는 슬픔 대신 서러움을 쓴다. 설명 없이 감정을 전달하기에 더 적합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어른이 되면 눈물을 참는 법을 알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이 쏟아져 나올 때, 콧물까지 줄줄 흐르며 꺽꺽대는 밤을 나는 서러운 밤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

무언가에, 또 누군가에게 싫증이 잘 난다면 그건 아마도 ‘싫증이 잘 나는 성향’이라서가 아니라 잘 마모될 수밖에 없는 부분만 골라서 좋아하는 성향 탓일 수 있다.

중력이 내게 해주고픈 말을 받아들이면서 다만 너무 아프지 않게 나이 드는 것, 그러나 숫자로 모든 걸 판단하는 우를 범하지 않는 것, 육체의 유한함 앞에 겸허해지는 것, 이것이 앞으로의 내 나이에 관한 바람이다.

아직 꿈이 없다면 차라리 그대로가 자연스럽다. 꿈은 ‘좋아하는 것들’이 생겨나고 취향이 생겨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것이다. 내 마음이 끌려 탄생한 꿈은 자연스럽게 나를 이끌어 작은 목표들을 만들어준다. 마음이 하는 모든 일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를 이끌 듯 꿈도 그렇다. 꿈은 목표와 성질이 다르기에, 반드시 이루지 않아도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도 한다. 작가가 꿈인 사람은 글을 쓸 때 행복할 수 있다. 행복하기 때문에 거듭 글을 쓴 사람은 자연스레 필력이 늘고, 그러다 본격적으로 목표를 세웠을 때 꿈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나댄다는 말만큼 앞뒤 맥락 없이 찬물 끼얹는 말이 있을까. 순식간에 한 사람은 쪽정이가 되고, ‘나댄다’며 손가락질하는 이들은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무리’가 되는 마법의 말.

그런 그의 별명 중 하나가 ‘팀 정세운’인데, 녹화를 하며 이에 대해 대화를 나누던 중 그가 했던 이야기가 마음에 담겼다.

그는 예능 프로그램에 나갈 때, 음악을 만들 때, 또 부를 때, 라디오 DJ를 할 때 등의 상황에 따라 다른 자아가 있다고 했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특히 방송을 하는 음악인은 반드시 겪게 되는 정체성 혼란의 시기를 자기만의 방식으로 해결한 것이다. 그럼으로써 그는 결이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내는 데서 오는 스트레스와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었다고 했다.

사람은 본인 고유의 색깔을 가져야 한다고, 특별한 나만의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고 늘 말하곤 한다. 그리고는 정작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본능적으로 배척한다. 이것은 낯선 생명체를 거부하는 동물적인 본능에서 기인한 습성이겠지만 우리는 인간이기에 그 본능을 이성으로 거를 수 있어야 함에도, 자주 그러기를 실패한다. 그리고 반짝이는 그 특별한 사람을 성의 없는 한 마디로 정의해버린다. ‘이상하다!’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것들을 많이 잃어봐야 우리는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판단력을 가질 수 있을까. 앞으로 살면서 우리는 아마도, 수없이 많은 ‘이상하다’는 말을 툭 하고 내뱉게 될 것이다. 그때마다 그 말을 ‘특별하다’고 대체하는 것만으로도, 좀 더 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음미하며 살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

나이가 들면서 내 언어의 나이 들을 인정하던 순간은 유쾌하지 않았다. 자괴감에 빠졌지만, 인정해야만 했다. 돌아보면 쉬운 일이지만, 닥치면 어려웠던 모든 일들은 이 ‘인정’이었다. 나의 한계를 느꼈을 때, 더이상 힘으로 밀어내는 건 객기일 뿐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 그렇지만 나이가 들었기에 쓸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었다. 감각적인 가사로는 더이상 대표작을 내놓지 못한다면 나는 어떤 이야기를 쓸 수 있을까. 고민의 방향을 바꾸니 다시 달려볼 힘이 생겼다. 이때 즈음 나왔던 게 이선희의 <그 중에 그대를 만나> 같은 타깃 연령대가 조금 더 높아진 가사였다. 노래가 사랑받으며 다시 한 번 자신감이 생겼고, 혼자만의 2막을 연 기분이 들기도 했다.

인간은 안정된 삶을 누리기 위해 오늘을 포기하는 동시에, 그 안정이 오면 회의감을 느낀다. 나는 내심 챗바퀴같이 돌아가는 스케줄 속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내가 어딘가 잘못된 것만 같아서 이런 말을 하지 않던 때가 있었다. 멀리서 보기에 다채로워 보일 수 있지만, 내 일상은 요일별로 정확히 정해진 루틴으로 반복된 지 오래다. 물론 육체적인 피로도 때문에 이 챗바퀴가 문득문득 숨이 막힐 때가 있다. 그럴 때마다 내가 떠올리는 건 언젠가 깨달은 이 생각이다.

‘나는 이 챗바퀴를 만들기 위해 그토록 열심히 살았다.’

자존심이 꺾이지 않으려 버티는 막대기 같은 거라면, 자존감은 꺾이고 말고부터 자유로운 유연한 무엇이다. 자존심은 지켜지고 말고의 주체가 외부에 있지만 자존감은 철저히 내부에 존재한다. 그래서 다른 누가 아닌 스스로를 기특히 여기는 순간은 자존감 통장에 차곡차곡 쌓인다. 선행에는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욕망이 부록처럼 딸려온다. 어릴 때 칭찬에 길들여졌을 수많은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내성이고, 특별히 나쁠 것도 없는 점이기도 하다. 허

나 선행이 누군가의 칭찬과 거래되는 순간 자존감 통장에는 쓸일 것이 없다. 나의 대견함을 ‘알아주는’ 주체를 타인에게 넘겨버릇하는 게 위험한 이유다.

하루의 반복이 지금은 싫을 수 있지만, 사실 하루에 반복되는 것들은 그저 해가 뜨는 위치, 시계 속 숫자뿐이에요. 그것 말고는 매일이 완전 새로운 하루거든요. 새로 주어진 하루가 있다는 거, 새삼 참 감사한 일이 아닐까. 또 새로운 기회처럼 새로운 하루가 끊임없이 주어진다는 것이 그 자체로 기적적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매일매일 새 하루가 지속해서 주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성장

스스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고 나서 비로소 우리는 무엇이든 될 수 있더라고요. ‘내가 뭐든 될 것 같고, 만나가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겠지’라고 생각하며 자기 능력치의 벽을 부딪혀보기 전까지는, 미래를 그릴 수가 없어요. 하고 싶은 게 뭔지도 모르고, 내가 어떤 모양새이며 내가 어디가 부족하고 어디가 잘났는지를 볼 수 있는 기능이 작동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아,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고 나서는 그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좀 반복되어도 건강한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랬다가 다시 무엇이든 되었다가 다시 또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었다가. 이 반복이 저는 인간이 겪어야 되는 아름다운 순리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요.

완벽의 비결

실제로 픽사에서는 처음 나온 작품의 초안을 대부분 버린대요. 가장 먼저 떠오른 아이디어들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흔한 것들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에게 배웁니다. 결국, 완벽한 결과물을 만드는 데 필요한 건 하늘에서 떨어진 능력이 아닌 열정과 끈기라는 걸요.

후회

가장 최근에 한 후회, 어떤 게 있으세요? 작게는 어제 골랐던 저녁 메뉴부터 크게는 나의 인생을 뒤흔드는 일까지 우리는 하루에도 참 많은 선택을 하고, 또 그 선택에는 대부분 후회라는 이름이 뒤따라오죠. 특히 후회는 많은 선택권이 있을수록 더 커집니다. 내가 선택하지 못한 수많은 가능성과 가지 않은 길에 대한 아쉬움이 뒤섞여 자꾸만 내 머릿속을 어지럽히거든요. 하지만요, 한 작가의 말을 빌리자면 인간은 반드시 한 가지를 결정해야 할 때 본능적으로 최선을 다해 선택한다고 합니다. 돌아보면 후회밖에 없는 그 선택도 ‘그때는 제일 나은 선택이었다’는 거죠. 혹시 후회로 가득한 밤을 보내고 있다면 잠시 멈춰볼까요? 그땐 그게 최선이었을 테니까요.

가끔 내 부족함에 나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다. 더 최선을 다하고 더 열심히 했으면 좋았을 걸 왜 이 모양인 거냐며 스스로를 탓한다. 그럴 때마다 생각하자. 누군가에게 평가되기까지의 시간을 견디며 결과물을 내는 건 어렵지만 평가는 쉽다. 쉬운 평가에 휘둘려 내 지난 고민의 시간을 스스로 깎아내리지 말자.

귀찮, 귀찮지만 매일 씁니다

좋은 생각이 떠올랐을 때, 그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선 반드시 평소에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있어야 한다. 그게 아무리 형편없는 글과 그림이라도 매일 그리고 쓰고 있어야 진짜 좋은 생각이 났을 때 그 생각을 놓치지 않고 표현할 수 있다. 아홉 번의 형편없는 글 없이 열 번째의 좋은 글은 나올 수 없는 것이다.

부족하고 엉망일지라도 매일 그리고 쓰기 위해 나 스스로 하는 다짐. 그러니 오늘도 이토록 형편없는 일상을 기록하자.

인스타그램에 올린 만화가 1,000개를 훌쩍 넘어섰다. 요즘은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 때마다 이 기록들이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생각이 듈다. 기억력이 좋지 못해 옛날 일은 금세 까먹는 나는 이 일을 몇 년째 하고도 매번 새롭게 걱정하고 좌절하고, 타인과 나를 비교하고 자책하며 자신을 잃는다. 내 글과 그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초라하게 느껴진다.

그럴 때 과거의 끄적임들은 보여준다. 스치고 휘발되기 쉬운 일상의 순간을 내가 얼마나 잘 붙들어 쓰고 그리고 있었는지. 그걸 얼마나 반복해왔는지. 그반복 속에 얼마나 많은 결의 감정을 담아왔는지를. 그리고 말해준다. 오직 나만이 만들어낼 수 있었던 수천 장의 역사가 여기 고스란히 남아 있다고.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고.

“문경은 진짜 4월만 바라보고 사는 동네야. 봄, 이렇게 벚나무가 많은 동네가 어디 있어. 사방이 벚꽃이야.” 동생이 말했다.

영신숲, 금천, 모전천, 이목들.... 자주 가는 산책로마다 벚꽃이 만개했다. 아마 오늘부터 하루이틀 흐드러지게 피었다가 비 소식에 두 번 볼 새도 없이 지겠지. 그러나 까사진보다 눈에 많이 담아야 하는데, 아쉬워서 자꾸 사진으로 담게 된다.

내 지점토 인센스 홀더가 영 탐탁지 않았던 동생이 새로운 인센스 홀더를 만들었다.
아주 간단하고 멋지다.

누군가에게 알고 보니 별로고, 가벼워 보이고, 재미없고, 시시한 사람이 되더라도, 그래도 나만큼은 나에게 끊임 없는 기회를 줘야지.

할머니의 반짝임은 주변에 대한 관찰과 체념하지 않는 마음에서 오는 것 같았다. 시장 상인들이 추울까 봐 서울에서 따뜻한 솜바지를 해 와 100원에 내어주던 마음, 떡 장사가 신통치 않자 여든에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고 오늘처럼 여름날 더위에 지친 관광객들에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2,000원에 내어 주는 마음에서 말이다.

그림과 글엔 날개가 달려서 가끔 나를 신기한 곳으로 데려다준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하고, 해보고 싶었던 일을 해볼 수 있게 하고, 뜻밖의 여정을 떠나게 한다. 만화를 그리지 않았더라면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내 지루한 일상이 예측 불가능한 여행기로 바뀐다. 요즘 내가 그리고 쓰는 가장 큰 이유.

오늘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그냥 제출했다.

있는 거 가지고 더 잘하려고 아등바등하는 것보다 일단 손에 쥔 걸 던지고 다시 하는 게 좋아서.

집업실 앞에 있는 작은 밭을 고르고 삼동초 씨를 뿌린 다음 물을 흡뻑 주었다.

달력을 보니 어느덧 내일이면 입동. 혹시나 싶어 할머니한테 전화로 물어보니 때를 놓쳤다고 한다. 지난달에 심었다면 지금쯤 싹이 트고 뿌리를 내려 겨울을 날 수 있지만 지금은 날이 추워 얼어 죽을 거라고. 내년 봄 유채를 못 본단 소식에 실망한 내 목소리에 할머니는 이렇게 덧붙이셨다.

“내년 초에 안 나면 늦게라도 나여. 그냥 둬.”

어느덧 마지막 페이지다. 나는 언제나 당장을 바랐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당장 성공하길, 오늘 심었으니 내일모레 싹이 트고 하루가 다르게 자라길 바랐다. 그렇지 않으면 실패라 여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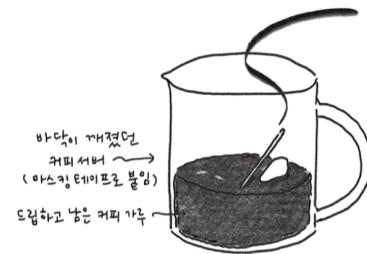
하지만 이 작은 삼동초자 때가 맞아야 싹이 튼다. 지금의 나는 어느 계절을 지나고 있을까? 모르겠다. 그래서 어쩌면 이번 책이 때를 놓친 삼동초 씨가 될 수도 있겠다. 그래도 실패라 여기지 말자. 할머니 말처럼 계절은 돌고 도니 까. 지금 안 나면 늦게라도 날 것이다. 그때까지 낙담하지 말고 실망하지 않고 계속, 그리고 쓰자.

4 월 9 일 | 토曜일

내 지점토 인센스 홀더가 영 탐탁지 않았던 동생이

새로운 인센스 홀더를 만들었다.

아주 간단하고 멋지다.



199

서박하, 소비단식 일기

중요한 건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키웠느냐와 상관없이 나 자신을 받아들이고 뚜벅뚜벅 걸어나가는 것이다. 다른 이들을 탓하며 사는 건 옳지 않다. 문제 해결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나는 이미 성인이 된 지 십수 년이 지났으며,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으며 살아온 시간보다 내가 혼자 결정하며 살아온 날이 더 길다. 지금의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부모님은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 나를 키웠고, 그분들의 실수는 이제 잘 기억나지 않는다. 어린 시절 내게 새겨진 무늬는 빛바랜 지 오래다. 스스로 나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최선이다. 그래서 나는 다시 병원으로 향한 것이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명품백을 사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삶의 질을 무엇을 소유하느냐, 어디에 사느냐로 평가하는 이 시대의 가치관을 정확하게 볼 수 있다. 한편으로 다행인 점은 이러한 광고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우리는 소비사회의 거대한 물결 속에서 살아가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썩 자연스럽지 않음을 알고 있다. 나의 존재 가치를 물건이나 소유가 아닌 나 자신만으로 보여줄 수는 없을까? 그런 세상이 될 수는 없을까?

익명성이 너무도 강한 세상인지라 타인을 만나면 결국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게 된다. 나조차도 누군가가 엘리베이터에서 내 아이에게 말을 걸면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경계를 푸느냐 아니냐를 결정한다. 이러한 세상에서 보이는 것, 소유한 것, 내가 사는 곳은 하나의 정체성이 되어버렸다. 이 흐름은 정말 올바른 것일까? 당장 정답을 알 수는 없지만 나는 소비하지 않음으로써, 즉 소비단식으로 나만의 방법을 찾아보려 한다.

근 10년간, 대학원을 다니면서는 지적 유희를 위한 책은 사치처럼 느껴져 자기계발 책을 엄청나게 사서 읽었다. 불안이 밀려오면 서점에서 책을 잔뜩 사거나 온라인 강의를 결제하는 내 모습. 나는 무언가를 배우는 것으로 불안을 극복하려고 했던 것 같다. 그 불안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를 찾다 보면 결국 ‘나는 왜 지금 돈을 못 벌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도달하곤 했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면 잉여 인생이라는 생각이 내 마음 기저에 있는 것이다.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계속되면 마음에 병이 찾아온다.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 지금 여기를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심리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늘 현재에 집중하지 않았다. 지금은 잠시 거쳐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했다. 현재 내가 하는 일, 내 주변 사람들에 집중하지 않았다.

늘 꿈을 꾸기만 하는 사람은 그 꿈이 실현되지 않으면 절망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그 과정이 반복되면 아프게 된다. 나처럼.

이제야 나는 현실을 직시한다. 아마존에서 물건을 팔아 월 몇백만 원을 버는 꿈이 아니라, 카드값을 줄이고 소비습관을 바꿔야 한다. 쓰다 만 립밤을 모아 사용한다. 나의 통장 잔고와 대출을 늘 염두에둔다. 읽다 만 책들을 정리하고 듣지 않은 강의를 다시 켜서 듣는다.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다. 두렵고 떨리지만 내게 주어진 현재를 밝은 빛 속에서 바라본다. 부끄럽다고 여긴 내 모습을 바로 본다. 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이기 위해서.

소비단식을 하면 내가 하는 소비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게 된다. 나는 이 물건이 왜 필요한가? 이 물건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환경, 인권 등의 문제를 떠올리게 된다.

아무도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곳에서 나는 오히려 더 편안하고 자유롭다. 매일 같은 걸 입는다. 아침에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길에 작은 카페에 들어가 마시는 커피 한잔에도 행복을 느낀다. 아이를 돌보고, 일하고, 저녁이면 가족들과 저녁을 먹고 책을 읽다 잠이 드는 단조로운 생활이 나를 치유한다. 만날 친구도, 가야 할 핫플레이스도 없고 그저 하루하루가 무탈한 것만으로도 감사한 이곳에서의 삶이 내 마음을 채운다. 나와 너무도 다른 사람들이 사는 이곳에서, 어쩌면 나는 온전

물론 부모님은 나를 사랑으로 키워주셨다. 부족함 없이 키우려 노력했고 최선을 다하셨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빈 자리는 늘 있기 마련이며, 그 자리는 스스로 채워야 하는 것이다. 부모님에 대한 원망으로 그 시절을 그대로 남겨 두는 것이 아니라 다 자란 내가 어린 나를 안아주면 되는 것이다.

자연스러운 식생활이 최고의 만족을 준다는 걸 새삼 느낀다. 한국과 똑같이 먹고 지내기 위해 너무 애쓰지 않기. 최대한 자연스럽게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권예슬, 취향의 기쁨

취향이 가난했던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가난했다. 반짝이는 것들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것에 ‘취향’이라는 이름을 붙여도 되는지 몰랐고, 그것들을 드러내는 방법에도 어리숙했던 것이다. 남들이 다 좋아하는 분야라고 해서 나 역시 좋아해야 할 필요가 없음을 뒤늦게 깨달았다.

한번 내 손에 들어온 물건들은 쉽게 버려지지 않기 때문에 살 때도 나름 꽤 신중한 편이다. 나를 오래도록 설레게 하는 물건들로 맥시멀리즘을 실천하고 싶은 마음이라고나 할까.

‘남는 에너지로 취향을 가꾸는 게 아니라, 취향을 가꾸다 보니 에너지가 생기는 거였구나.’ 없는 줄 알고 지내왔지만 사실은 방치해 두고 있었던 내 소중한 취향들. 비록 여전히 희미한 색이지만 아무렴 어떤가. 이제부터라도 내 취향들이 그 자체로 더욱 오래 윤기 날 수 있도록 귀를 기울여주고 시간을 쏟아볼 셈이다. 금방 사라질 한 줌의 취향이라도.

아, 이것들이 뭐라고 내 마음이 이리도 평온해지는지. 조각나 있던 일상의 파편들이 한데 모여 제자리를 찾아가는 기분. 일상성을 회복한다는 말이 이런 거였구나.

오늘도 마음이 가는 방향으로 몸을 움직여 본다. 첫발은 여전히 어렵다. 하지만 겁 없이 달려든다. 부끄러운 시작의 흔적은 어차피 나만 알 수 있고, 끝내는 그 시작이 기억조차 나지 않을 만큼 멋진 기록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확고한 믿음이 나를 계속 나아가게 만든다

나는 사실 질투심이 많았다. 주변인의 업적을 마주할 때마다 대단해 보이기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 ‘나도 생각했던 건 데, 뭐.’ ‘마음만 먹으면 저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하며 그의 업적을 양잡아 보는 못된 심보를 갖고 있었다.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업적을 가진 사람에게는 되레 진심을 담아 존경심을 표하곤 했었다. 지금 생각해도 얼마나 고약하고 못난 마음인지.

내가 감히 질투했던 많은 이들이 실로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었는지, 가벼워 보이는 그 시작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행이 있었는지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더 대단한 건 ‘꾸준함’이었다. 시작에서 멈추지 않고 꾸준히 이어나가는 삶. 그건 절대로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잡생각 그만하고 일에만 집중해 보라는 엄마의 단순한 조언이었는데 그날따라 말의 울림이 컸다. 때로는 생각 없이 주어진 일에만 ‘그냥’ 몰두할 필요도 있다는 것. 나에게 정말 절실한 말. 뜻하지 않게 만났던 머위대 한 상자와 명쾌한 엄마 덕분에 인생의 단순한 진리를 다시 한번 깨우치게 됐다.



모두의 미소를 이끌어내는 순간의 융기

30% (08/184p)

숲을 봐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으니 나는 현미경을 들고 열심히 나무를 보며 나만의 방식으로 살아 가련다. 가까이서 지저귀는 새와 각양각색의 동물들 덕분에 외로울 틈도 없을 것 같다.

책 읽는 내 모습이 좋아서 꾸준히 책을 가까이했더니 이제는 글 쓰는 내 모습이 좋아진다. 카페에 앉아 글감을 고민하고 문장을 나열하고 단어를 고르는 내 모습이 정말 좋다. 이렇게 좋아지기 시작한 모습들은 웬만하면 쉽게 질리지 않았으니, 나는 나와 잘 지내는 방법을 어느 정도 체득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누군가에겐 애매해 보일지 몰라도 흐릿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선명한 방법은 기록이다. 글감이 떠오르지 않을 때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 시절의 나를 만나며 새로운 이야기가 만들어지듯, 지난 과거는 내 마음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길잡이 역할을 대신했다. 과거의 나와 전혀 다른 모습 앞에서는 설렘을 느낄 때도 있다. 새로운 자극에서 발견하게 되는 또 다른 취향. 그런 날의 기록은 더욱 다채로워진다. 끊임없이 발견해 나갈 삶의 여정이 기대되는 순간이다.

박주원, 천 일 동안 나를 위해 살아 봤더니

마음이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알아. 말은 들리기라도 하지.

포기는 매달림보다 어렵다. 때때로 놓음은 붙잡음보다 더 힘이 듈다. 어떤 경우에 백기 투항은 무작정 적진으로 돌격하는 것보다 더 큰 용기를 필요로 한다. 그것은 어느 기도문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되, 내가 할 수 없는 것에는 고집부리지 않으며 무엇보다 그 둘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그런 자격을 갖춘 자라야 비로소 할 수 있는 고귀한 것이 바로 ‘포기’이기 때문이다.

어린 나날에 우리는 치기 어렸고 무모했으며 꼭 그만큼 뜨겁고 열렬했다. 그것은 모든 청춘이 그러하듯 많은 순간 아름다웠으나 또 많은 순간 존재를 다치게 했고 상처 입게 했다. 세월은 그렇게 우리를 할 수 있다, 포기는 없다, 못 먹어도 ‘고!’를 외치는 어린 때의 혈기를 누그러뜨리고 포기와 놓음 그리고 할 수 없음의 가치를 아는 존재로 바꿔 놓았다.

우리는 깨달았다. 때때로 포기는 열정보다 더 뜨거울 수 있으며 끝은 시작보다 더 크고 위대한 용기일 수 있음을.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나의 문이 닫히면, 하나의 문을 안간힘을 다해 놓으면, 또 다른 문이 기다렸다는 듯 열린다는 것도.

“그간 100편의 작품을 했는데 그 100편 다 결과가 다르다는 건 좀 신기한 것 같았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 100편 다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이 열심히 했거든요.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제가 잘해서 결과가 좋은 것도 아니고, 제가 못해서 망한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에는 참 많은, 열심히 사는 보통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세상은 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꿋꿋이 열심히 자기 일을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똑같은 결과가 주어지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하거나 지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간에 그 일을 계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그냥 계속하다 보면, 평소처럼 똑같이 했는데, 그동안 받지 못했던 위로와 보상이 여러분들을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저한테는 동백이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곧 반드시 여러분만의 동백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힘든데 세상이 못 알아준다고 생각할 때 속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곧 나만의 동백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요. 여러분들의 동백꽃이 곧 활짝 피기를 저 배우 오정세도 응원하겠습니다.”

중증의 우울증을 앓고 있던 이혼녀, 병세가 심각해짐에 따라 스스로는 푹신한 침대에 누울 자격조차 없다고 느껴 정신 요양원의 차가운 바닥에 몸을 웅크리고 자던 한 여자. ‘바이런 케이티’다.

그녀는 어느 날 문득 떠오른 단 하나의 질문으로 삶의 방향 전체가 바뀌고 만다. 막다른 사지로 내달리던 그의 인생은 그 하나의 질문으로 멈춰 섰고, 이내 각도를 틀고 이제껏 본 적 없던 곳으로 그녀를 데려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깨달음과 그 ‘질문’을 담은 책 『네 가지 질문』을 출간했고 베스트셀러가 됐다. 이후 그녀는 <오프라 윈프리 쇼>에 나와 자신의 지혜를 나눴으며 시사주간지 <타임> 역시 케이티를 이 시대의 새 영적 지도자로 소개했다.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 버린 그 막강한 질문은 이것이었다.

‘그게 진실인가요(Is it true)?’

그녀는 자신의 마음이, 세상의 잣대가, 기존의 상식이라는 것들이 말할 때마다 친절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의문 했다. ‘너는 안 돼. 너는 엉망이야. 중년의 이혼녀에다 우울증까지 있잖아. 너는 루저야. 네 인생은 망했어. 이 패배자야’라고 쉴 새 없이 독설을 날려 대는 마음에게 물었다.

‘내 말을 따라. 다들 하는 대로 따라. 뭘 별스럽게 튀려고 그래? 있는 듯 없는 듯 묻혀 가. 평범하게. 그냥.’

끊임없이 재단하고, 키를 맞추고, 규격에 맞게 틀에 넣으려는 세상에게도 얼굴을 바짝 대고 깊게 눈을 마주하며 물었다.

‘그게 진실이야? 정말로, 정말로 진실이야?’

케이티는 그 질문을 통해 자신이 생각해 온 많은 부분들, 아니 거의 전부라 할 만큼의 부분들이 ‘거짓’이었음을 알았다고 이야기했다.

또 부재라는 묘약이 연인 사이에 간간이 놓여 있을 때, 사랑이 더욱 깊어지는 것과 같이 일정한 거리는, 얼마간의 떨어짐은, 다소의 분리는 관계를 아름답게 만든다.

행복은 자신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일지 모른다. 어떤 조건도 이유도 없이 그냥 마음먹고 애써 결심하는 것일지 모른다. 100가지 이유를 붙여 인생에서 흡집을 찾아 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별다르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행복해하고 만다.

완벽한 상황, 완벽한 사람, 완벽한 타이밍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순간에도 완벽을 찾아 내는, 완벽한 마음만 존재할 뿐이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사랑받아야 하고, 아낌받아야 한다. 또 어떤 바보 같은 모습에도 응원받아야 하고, 괜찮다고 위로받아야 한다. 모든 삶의 순간마다 우리는 기꺼이 자신에게 1순위여야 한다. 나만 생각하며 실천한 내 이야기가 당신의 것이 될 수 있길 바라고 응원한다. 당신은 누가 뭐래도 있는 그대로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다.

김시내, 최수현, 퇴사합니다· 독립하려고요

『자기 인생의 철학자들』⁸(김지수 지음, 어떤책)

『자존가들』⁹(김지수 지음, 어떤책)

<김지수의 인터스텔라>¹⁰만큼 마음을 울리는 인터뷰 시리즈가 있을까 싶어요·

관심 있는 스타트업의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더브이씨(thevc.kr)’나 이번 주 스타트업 업계의 투자 소식을 받을 수 있는 ‘스타트업 위클리(glance.media)’ 뉴스레터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아래는 스타트업 채용을 찾아볼 수 있는 페이지들입니다.

원티드(wanted.co.kr), 로켓 펀치(rocketpunch.com)는 채용하고 있는 스타트업 공고를 확인할 수 있어요.

커리어리(careerly.co.kr)는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치열하게 고민하고 생각하는지 살펴볼 수 있는 커리어 SNS입니다.

책 『나의 첫 사이드 프로젝트』(최재원 지음, 휴머니스트)

가볍게 몸풀기부터 사이드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가이드북이에요. 사이드 프로젝트로 여러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는 라이프쉐어(lifeshare.kr)를 운영하는 최재원 작가의 경험담을 통해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차근차근 나만의 사이드 프로젝트를 시작해볼 수 있을 거예요.

뉴스레터 SIDE

사이드 프로젝트라는 말이 알려지기 훨씬 전인 2017년에 sideproject.co.kr이라는 도메인을 구입한 분이 있어요. 바로 정혜윤 님이랍니다. 혜윤 님은 “이것저것 하고 싶은 다능인을 위한 커뮤니티” SIDE를 만들고, 그들에게 위로와 영감을 건네는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있는데요. 레터에는 세상이 정답이라고 정해준 길이 아닌,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가는 혜윤 님의 이야기뿐 아니라 다능인들의 인터뷰도 담겨 있어요. 다양한 레퍼런스를 살펴 보면 내 마음이 어느 쪽으로 향하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IT 사이드 프로젝트 플랫폼 비사이드 bside.best

혼자서 사이드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막막하다면 비사이드에 지원해보세요. 기획자, 디자이너, 개발자를 한 팀으로 묶어주고 멘토링도 지원하는 사이드 프로젝트 플랫폼이에요. 다양한 사람들과 협업해볼 수 있고, 일터를 벗어나 새로운 일을 시작할 기회를 만들 수 있답니다.

밀미 nicetomeetme.kr

자아성장 큐레이션 플랫폼 밀미에서 진행하는 모임, 온라인 리추얼을 추천합니다. 리추얼은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이자, 마음이 괴로울 때 나를 일으킬 수 있는 작은 일상을 말하는데요, 오랫동안 자신만의 리추얼을 유지한 리추얼 메이커가 진행하는 모임에 참가해서 나만의 리추얼을 만들 수 있어요. 저는 하루를 정돈하는 이브닝 요가×글쓰기 모임에 석 달 동안 참여하면서 매일 글을 쓰고 요가 하는 습관을 한동안 유지했어요.

유튜브 <세바시 강연>

135회 자신의 욕망에 집중하라 : 최진석(서강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

책 『자기 결정』¹¹(페터 비에리 지음, 문항심 옮김, 은행나무)

『퇴사는 여행』¹²을 쓴 정혜윤 님이었어요. 저도 퇴사를 꿈꾸던 때, 혜윤 님이 퇴사를 알리며 브런치에 쓴 글 <주 5일 출근하는 삶에서 독립>을 인상 깊게 읽었거든요.

이직의 기회도 있었지만, 나는 아예 다른 방향으로 가보기로 결정했다.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은 자유롭게, 계속하면서 나만의 길을 만들어나가보기로 했다.

정혜윤, <주 5일 출근하는 삶에서 독립>¹³

『도쿄R부동산 이렇게 일 합니다』¹⁴에서는 회사에 소속되어 있지만 다른 일도 병행할 수 있는 N잡 프리 워커, 프리 에이전트라는 개념으로 일할 수 있는 ‘도쿄R부동산’이라는 회사의 업무 방식을 엿볼 수 있고요.

『코끼리와 벼룩』¹⁵에서는 일찍이 자본주의의 변화를 예측해서 조직에 기대지 않고 독립생활자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인디펜던트 워커』¹⁶에서는 주체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일에 지치지 않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자신에게 맞는 환경에서 일하는 방식을 엿볼 수 있었고, 『뉴타입의 시대』¹⁷에서는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는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었답니다. 예를 들면 규칙보다 감각을 따르는 것이 새로운 인재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요.

콘텐츠 구독

평소에도 업무 역량을 올리거나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해 뉴스레터와 지식 콘텐츠 플랫폼을 구독하고 있어요. 주로 트렌드, 마케팅에 대한 것들인데요. 소개해드릴게요.

추천 뉴스레터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알려주는 뉴닉 NEWNEEK

하루에 하나씩 트렌드를 알려주는 트렌드어워드 Trend A Word

일주일에 한 번 MZ세대의 트렌드를 분석해서 보내주는 캐릿 Careet

신제품 소식을 재미있게 소개해주는 까탈로그

10년 사업가의 날것의 생각이 그대로 담긴 유료 뉴스레터,

트루스 그룹 윤소정 대표님(@bemyself_sojung)의 생각구독

스타트업 업계의 투자 소식과 유용한 정보를 담은 스타트업얼라이언스의

스타트업 위클리 Startup Weekly

스타트업 실무 인사이트를 가득 담는 그로우앤베�터

프리 워커에게 유용한 정보와 사례를 소개하는 뉴워커

작은 브랜드의 성장을 돋는 정보를 담은 스몰레터

추천 콘텐츠 플랫폼

사회초년생, 마케터에게 유용한 정보가 가득해서 업무 시간을 줄여주는 퍼블리 publy.co

국내외 주목할 만한 브랜드의 비하인드와 트렌드를 짚어주는 롱블랙 longblack.co

해외 비즈니스를 트렌드를 가장 빠르게 소개하는 데일리 트렌드 dailytrend.co.kr

스타트업, IT 업계 소식을 쉽고 재미있게 소개하는 아웃스탠딩 outstanding.kr

추천 인스타그램

MZ세대의 패션과 라이프스타일 트렌드를 담는 온라인매거진 @eyesmag

패션 업계의 핫한 트렌드를 실시간으로 담는 @dailyfashion_news

창작자로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지식을 소개하는 @yeojung.art

창업, 디자인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인스타그램 웹툰 @changdi.designer

알프레드 아들러, 항상 나를 가로막는 나에게

“자유의지는 없다”고 단정했던 프로이트의 결정론적 인과론이 아니라 자유론적 목적론의 시각을 내세웠던 아들러는 인간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라고 주장했으며 ‘목표가 인간의 성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처음으로 철학적이고도 심리학적인 주장을 펼쳤다.

혹시 아직 눈치채지 못했는가? 내 주위의 부부들에게는 모두 문제가 있다. 항상 나를 가로막는 나에게 중에서 세상에 정상적인 사람이 있다면 그건 당신이 잘 모르는 사람일 뿐이다.

인간의 본성

인간에 대한 많은 선입견과 자만심을 버려야만 비로소, 인간 본성을 이해할 수 있다. 뜻밖에도 우리 중 인간을 제대로 이해하는 이가 적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지하다. 그건 서로가 소외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습관적으로 했던 말과 행동을 멈추게 되고 진정 자신에게 행복을 가져다줄 수 있는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있어 진정한 변화는 의지의 영역이 아니다. 인지의 영역이다. 백 번 각오하고 다짐하는 것보다 한 번 제대로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

혼자 있을 때 나쁜 사람이 과연 있을까?

혼자 있을 때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 있을까? 사람은 오직 관계 안에서 해석되고 설명된다.

목표가 없다, 무기력하다, 하고 싶은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그만큼 목표가 현실보다 너무나 커서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것이다. 설명하지 못하면 정확히 알지 못한다.

행복의 근원

사랑하고 있고 일에서 성취감을 느끼며 친구들과 어울리며 살고 있는 사람을 살펴보라. 이 사람에게 인생이란 동료에게 관심을 갖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세 가지 영역 중 하나라도 문제가 있는 경우, 사람은 대개 결핍을 느낀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혹은 다른 사람이 그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가 인간 세상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다.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다.

다만, 항상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을 뿐이다. 부주의는 다른 사람이 요구하는 것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목표를 갖는 이유

인간은 자신이 약하고 부족하다는 느낌을 오래 견디지 못한다. 때문에 이런 느낌은 인간을 계속 움직이고 행동하도록 자극한다. 그래서 인간은 목표를 갖는 것이다.

미래는 과거의 해석이다

과거가 우리가 극복하려던 열등감이나 결핍감을 보여준다면 미래는 어디로 그 에너지를 옮겨갈 것인지 방향과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미래는 그가 과거의 열등감과 결핍을 어떻게 해석하고 무엇을 실행에 옮기는가에 달려 있다.

예민한 사람들

너무 까다롭고 예민한 사람들이 있다. 성질이 고약하고 걸핏하면 화를 내거나 돌아서는 사람들도 있다. 이러한 것은 모두 열등감의 다른 표현이다.

항상 바쁜 사람들

끊임없이 움직이거나, 고집이 유달리 세거나 항상 뭔가를 하려고 안달하는 사람이야말로 대단한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완벽에의 추구

개인심리학은 진화에 그 이론적 토대를 두고 있다. 우리는 인간의 진화를 믿는다. 사람은 누구나 완벽해지려고 애쓴다. 마이너스 상황을 플러스 상황으로 바꾸려고 고군분투한다. 그것이 잘되지 않으면 정신적, 신체적 문제가 생겨난다.

예민한 사람들

너무 까다롭고 예민한 사람들이 있다. 성질이 고약하고 걸핏하면 화를 내거나 돌아서는 사람들도 있다. 이러한 것은 모두 열등감의 다른 표현이다.

항상 바쁜 사람들

끊임없이 움직이거나, 고집이 유달리 세거나 항상 뭔가를 하려고 안달하는 사람이야말로 대단한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완벽에의 추구

개인심리학은 진화에 그 이론적 토대를 두고 있다. 우리는 인간의 진화를 믿는다. 사람은 누구나 완벽해지려고 애쓴다. 마이너스 상황을 플러스 상황으로 바꾸려고 고군분투한다. 그것이 잘되지 않으면 정신적, 신체적 문제가 생겨난다.

자살의 목적

자살은 언제나 복수이거나 양같음이다. 자살하려는 사람은 자신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에게 전가하려 한다. "나는 정말 여리고 예민한 사람인데, 네가 나를 이렇게 잔인하게 대하다니!"라는 메시지를 몸으로 표현하고 있

는 것이다. 상황을 정면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타인이나 상황을 그저 지배하려는, 우월감만을 느끼려는 데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당신의 목표는 무엇인가

누구도 자신이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자신이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직업적 목표에 대해서는 알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것은 지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자신이 추구하는 우월함에 대한 목표, 그 본질을 깨달을 때 인간은 진정 자신의 꿈을 이해할 수 있다.

감정의 목적

모든 감정과 행동에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목표가 있는 사람은 감정을 그 목표 달성을 맞게 적응시킨다. 이를테면 ‘분노’는 종종 타인이나 상황을 지배하기 위해 꺼내 드는 장치다. 습관적으로 화를 내는 사람은 상대를 빠른 시간 안에 굴복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그럴 만한 힘이 없는 사람은 자신에게 화를 돌리는, 이를바 자학의 태도를 취한다.

맥락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증상만 해결하려 든다면, 아마 그는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또 다른 문제를 만들 어낼지도 모른다. 이처럼 하나의 증세를 분명히 고쳤는데 또 다른 증상을 순식간에 만들어내는 신경증 환자는 너무나 많이 있다.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한다. 환자는 자신의 증상을 자신의 의도대로 만들어낼 수 있음을.

이렇게 약함을 하소연하는 것은, 나약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지배하기 위해 쓰는 가장 보편적 방법의 하나다.

모든 기억은 주관적이다 경험과 마찬가지로 모든 기억도 주관적이다. 나를 보고 웃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내가 기분이 좋으면 그가 미소 짓는 것으로 보일 것이고, 내가 마음이 꼬여 있으면 그가 비웃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사람은 자신의 현재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사실만 기억한다. 그러므로 기억은, 시시때때로 바뀌는 감정만큼이나 믿을 것이 못 된다.

트라우마란 없다

트라우마의 충격으로 무엇인가를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는 연구 끝에, 사람은 종종 자신의 상황을 합리화하고자 필요한 트라우마를 만들어내기도 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해결하기 어려운 충격, 절대적 사건이란 없다. 그렇다고 느끼는 해석만 있을 뿐이다.

나에게 집중된, 나 자신에 대한 과도한 생각이 여러 가지 병을 낳는다.

아이였을 때의 느낌과 경험이 직장 생활을 하는 당신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신기하지 않은가.

기억과 꿈의 공통점

우울한 사람의 과거는 우울한 것으로만 가득하고, 희망에 차 있는 사람에게는 과거도 긍정적인 것으로만 선택되어 기억에 남는다. 과거에 대한 기억은 그 사람의 현재 인생을 대변하는 ‘스토리’이다. 자신의 목표와 관련된, 미래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기억으로 정리된다. 이러한 기억을 반복적으로 활용해 자신의 일상을 더욱 공고히 만들 어간다.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필요한 것만 기억한다. 그런 의미에서 기억은 꿈과 매우 비슷한 기능을 하고 비슷하게 활용된다.

그가 선택한 ‘방법’이 아니라, 그 방법으로 무엇을 달성하려 하는지 ‘목표’에 초점을 맞춘다. 오로지 목표를 정상화 해야만 습관과 태도를 고칠 수가 있다. 목표를 새롭게 정립하면 자연스럽게 나쁜 습관, 잘못된 태도를 버리게 된다. 목표가 바뀐 사람은 더 이상 예전의 그가 아니다.

잘 먹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항상 궁지에 몰린 환경에서 자란 아이라고 해서 모두가 범죄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아이가 환경에 대해 내리는 결론이다. 가정환경과 주위의 사회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가,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아이의 미래를 결정한다. 돈 그 자체보다 돈에 대한 태도, 돈에 대한 경험과 관점이 중요하다.

사람은 스스로 배우는 존재다.

학교에 가서 문제가 생기는 아이는 없다. 다만 이전에 갖고 있던 문제가 드러나는 것일 뿐이다.

협력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아이들은 대개 아직 누군가와 무엇을 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이다. 삶에서 만나는 사회적 문제들에 대처할 준비를 하지 못한 것이다. 자신의 속도대로 서서히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과 기회를 주어야 한다.

자신에게 부족한 것과 없는 것에 대한 결핍에 매몰되지 않고, 타인과 사회로 나아가게 해야 한다. 그러면 자신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좋아진다.

행동을 믿는다

나는 오로지 행동만 믿는다. 삶은 말이 아니라 행동하는 단계에서 펼쳐지는 것. 행동을 믿자.

항상 당당한 사람들의 이유

열등감이 전혀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열등감과 우월함이 사회적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심리적 메커니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 메커니즘은 사회에 대한 관심과 용기로 만들어진다. 즉 열등감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승화시킨 것이다. 자신만이 아니라 사회로 눈을 돌릴 때, 사람과의 관계에서 재미를 느낄 때 자신감은 생겨난다.

낮에 꾸는 꿈과 밤에 꾸는 꿈은 그 단어만 같은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기능이 같다. 둘 사이에 다른 점이 있다면, 낮의 꿈은 이해하기 쉬운데 반해 밤의 꿈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 정도이다.

기억하지 못하는 꿈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일까? 아니다. 항상 무언가는 남아 있다. 이해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해도 꿈이 불러일으킨 감정만은 남는다. 꿈을 꾸는 목적은, 깬 뒤에 남는 감정에 있다. 개인의 감정은 자신의 삶의 방식에 부합하여 일관되게 설명되도록 만들어진다.

항상 당당한 사람들의 이유

열등감이 전혀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열등감과 우월함이 사회적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심리적 메커니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 메커니즘은 사회에 대한 관심과 용기로 만들어진다. 즉 열등감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승화시킨 것이다. 자신만이 아니라 사회로 눈을 돌릴 때, 사람과의 관계에서 재미를 느낄 때 자신감은 생겨난다.

낮에 꾸는 꿈과 밤에 꾸는 꿈은 그 단어만 같은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기능이 같다. 둘 사이에 다른 점이 있다면, 낮의 꿈은 이해하기 쉬운데 반해 밤의 꿈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 정도이다.

기억하지 못하는 꿈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일까? 아니다. 항상 무언가는 남아 있다. 이해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해도 꿈이 불러일으킨 감정만은 남는다. 꿈을 꾸는 목적은, 깬 뒤에 남는 감정에 있다. 개인의 감정은 자신의 삶의 방식에 부합하여 일관되게 설명되도록 만들어진다.

가장 위험한 것 삶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너무 많이 예방하고 준비하는 것이다.

용기란 무엇인가

장애물을 만나더라도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일이 이 장애물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마음을 우리는 용기라고 한다.

회피하면서 만족하는 사람들

우리도 잘 알듯, 인간은 적당히 타협해서 만족해하는 방법을 끊임없이 찾아낸다. 포도를 따먹으려다 실패하자, 바로 신 포도일 거라고 단정지으며 돌아서는 여우처럼 애초에 품었던 뜻을, 현실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묻어버린다. 그러면서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 탓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서 자신 역시 피해자인양 슬픈 표정을 짓는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막상 자신의 일에는 정성을 다해 매진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자신의 어려움이 사회의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에 열심히 한들 해결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

가장 위험한 것

삶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너무 많이 예방하고 준비하는 것이다.

질문이 내게 올 때

인생의 의미란 무엇인가? 인간은 왜 사는가? 이런 질문은 주로 실패한 사람,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하는 법이다. 모든 것이 순탄하고 어려움이 없을 때 이런 질문을 하지는 않는다. 질문에서 답이 나오기를 기대하지 마라. 아무리 기다려도 답이 오지는 않을 것이다.

삶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세 가지

개인심리학의 모든 방법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인간을 이해한다. 우월해지려는 인간의 목표, 열등감과 결핍의 힘, 그리고 사회적 관심 정도. 이 세 가지를 어느 정도로 가졌는지 살펴보면 그 사람의 전체적 심리상태를 거의 파악할 수 있다.

자신이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그것이 용기이고 근원적 치유의 시작이다. 어느 누구도 당신을 무시하지 않고 당신을 싫어하지 않는다. 당신의 착각일 뿐이다.

어떤 문제든 해법은 여기에 있다. 더 용기를 내고 더 협력하는 것.

황현산, 황현산의 사소한 부탁

섣부른 근대주의자들의 주장이나 설명 방식에는 이해가 쉽지 않은 것들을 가난이나 동매함의 탓으로 돌려 농어촌을 도시의 식민지로 삼으려는 음모가 종종 숨어있다. 그 음모 속에서 삶의 깊은 속내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자만하는 자들의 천박한 시선 아래 단일한 평면이 되어버린다. 나름대로 삶의 중심이었던 자리들이 도시의 변두리로 전락하는 것은 그다음 수순이다. 식민주의의 권력자들은 삶을 통제하기 전에 먼저 삶을 수치스러운 것으로 만든다. 물론 이 일은 도시 안에서도 일어나고 한 사람의 도시민 내부에서도 일어난다.

어떤 의미에서 근대주의는 한 시대의 과학으로 (또는 그 과학에도 미치지 못하는 허접한 지식으로) 미래의 지혜만이 해명할 수 있는 것들을, 또는 미래의 지혜 그 자체를 억압하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불투명한 내부는 우리 삶의 부끄러움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삶이 다른 삶의 식민지가 되지 않았다는 증거다.

한 문인이 취직을 하지 않는다면 그가 작가로서 성공했음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말에 필요 없는 음절을 집어넣는 방법은 고전적이기까지 하다. 우리때는 음절마다 '앵애'를 넣은 어법이 유행했다. 이 어법에서 '사랑'은 '사앵애라앵앵'이 되고 '손톱'은 '소앵앤토애앱'이 된다.

축약의 남발도 말에 가하는 폭력의 일종이지만, 욕설이나 '앵애어'와는 성질이 조금 다르다. 욕설 등속은 말을 여전히 말로 대하는 반면에 과도한 축약어는 말을 오직 기호로만 대한다. 기호를 소통의 도구로 삼는 사람은 오직 외부와 소통할 수 있을 뿐인데, 말을 말로 대접하여 말하는 사람은 저 자신과도 소통한다. 그것이 말의 힘이다.

악마는 눈뜨고 그 생때같은 아이들을 잃는 순간에도 우왕좌왕할 정부를 기다려 배를 침몰시켰다.

자연은 돈으로 매수할 수 없고 권력으로 호령할 수 없다. 자연 속에 이 안온한 삶을 그대로 옮겨놓으려는 자에게 돈과 권력은 자연을 파괴하는데만 소용될 뿐이다.

우리는 늘 사소한 것에서 실패한다.

상투적인 글쓰기는 소박한 미덕을 지닌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식민 세력에 동조하는 특징을 지닌다. 자신의 삶에 내장된 힘을 새롭게 인식하려 하지 않고, '산다는 것이 늘 그런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예술가는 남이 가지 않는 다른 길을 간다는 말이 있다. 그 다른 길은 그려져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추상적인 것도 아니다. 당신이 저 상투적인 '살랑살랑' 대신 다른 말을 써 넣는다면 당신은 벌써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당신은 벌써 예술가다.

창조는 우리가 손님으로 살고있는 이 세상에 어떤 풍경 하나를 만들어 덧붙임으로써 제한된 시공에서나마 이 세상의 주인으로 행세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기가 만든 것은 그 결함이 제 눈에 보이지만 남의 창작품은 늘

완벽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 완벽함의 주인이 되는 것은 이 세상의 주인이 되는 것과 같으니, 그에 대한 욕망은 다른 모든 욕망을 압도할 수 있다.

인간의 의식 밑바닥으로 가장 깊이 내려갈 수 있는 언어는 그 인간의 모국어다. 외국어는 컴퓨터 언어와 같다. 번역 과정을 거칠 때의 논리적 정확성에 의해서도 그렇지만 낭비를 용납하지 않는 그 경제적 측면에서도 그렇다. 지식과 의식의 깊이를 연결시키려는 노력은 낭비에 해당하며, 그 낭비에 의해서만 지식은 인간을 발전시킨다. 외국어로는 아는 것만 말할 수 있지만 모국어로는 알지 못하는 것도 말한다. 인간은 기계가 아니다. 마찬가지로 말은 도구적 기호에 그치지 않는다.

타자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재난인가.

의심하는 상태에서 그 의심을 깨치면서 앎을 넓히는 것보다 인간에게 더 즐거운 일도 드물다.

언어는 사람만큼 섬세하고, 사람이 살아온 역사만큼 복잡하다. 언어를 다루는 일과 도구가 또한 그러해야 할 것이다.

도로시 리즈, 질문의 7가지 힘

만일 대화를 계속 하고 싶다면 개방형 질문을 해야 한다. 개방형 질문은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을 하게 만들고 토의를 이끌어 낸다. 상대방이 함께 참여해서 의견을 교환하게 한다. 개방형 질문은 심층적인 대답을 요구한다.

- 이 파티의 주최자를 어떻게 아십니까?
- 이 파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난번 직장에서 어떤 일을 했나요?
- 우리 회사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죠?
- 이 일을 좀더 잘하려면 어떤 점을 바꿔야 할까요?
-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나요?

이러한 개방형 질문을 하면 스스럼없는 대화가 이어지며, 폐쇄형 질문을 연달아 할 때처럼 상대방에게 심문하는 느낌을 주지 않는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감정과 의견에 대해 이야기 하기를 좋아하는데, 개방형 질문은 이 모든 것을 허락한다.

사람들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대부분 고의적이 아니라 어떤 연관성을 깨닫지 못하거나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매표소 직원은 내 질문에 꼬박꼬박 대답했다. 문제는 질문에만 대답하고 자진해서 다른 정보를 주지 않은 것이다.

몇 주일 치 표가 이미 다 팔렸기 때문에 매표원의 관점에서 보면 매진이 되었다는 것이 당연한 사실이었다. 그리고 나는 매표원이 내가 표가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당연히 생각한 것이다. 양쪽 모두 상황을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한 것이다.

필요한 정보를 모두 얻었다고 생각하더라도 마지막으로 대화를 끝내면서 한 가지 확인 질문을 하자. 이것은 옛날부터 기자들이 사용하는 기술이다. 인터뷰를 끝낼 때 기자는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까?"하고 묻는다. 그들이 종종 이 질문으로 최고의 인용문을 얻어내기도 한다.

어떤 상황에서나 가장 효과적인 통제 방법은 준비를 하는 것이다. 많이 알고 있을수록 적절한 질문으로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다.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만드는 질문이 효과가 있는 한 가지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방법 중의 하나는 이전 질문과 대답에 연결해서 질문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주제를 철저하게 파고드는 것이다. 만일 "어디 사시죠?" 라고 묻는다면 그 대답에 연결해서 "다른 곳에서 사신 적이 있나요?" 라고 묻는다. 상대방의 대답에서 자녀들의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자녀가 몇명인가요?"라는 질문으로 건너뛰지 말자.

질문의 힘은 어떤 조직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다. 질문은 경쟁사에 밀려서 점차 터전을 잃어가고 있던 정체된 조직을 제때 동향과 변화를 읽어내고 이해해서 충분히 활용하는 생각하는 조직으로 변화시킨다. 질문은 영업사원들의

실적을 높여서 조직의 장기적인 생존과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지도자들의 능률을 증진해서 직원들이 좀 더 높은 성과를 올리도록 훈련하고 자극하고 사기를 높이고 지도하게 된다.

탐색 질문을 할 때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등과 같은 전통적인 질문은 하지 말자. 대신 생각해보라, 묘사하라, 분석하라, 예시해 보라, 해석해 보라, 확인해 보라 등과 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고객이 설명을 하게 만들자. 아니면 비교해 보라, 가늠해 보라, 연결해 보라, 구분해 보라, 판단해 보라 등과 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유사성과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게 하자.

종교는 질문의 중요성에 대한 많은 가르침을 준다. 토라(유대교 경전) 해설가인 이바 에즈라는 "질문하기를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뒤떨어진다."라고 말했다. 현자는 질문에 질문으로 답한다는 금언도 있다. 적절한 질문은 주위에 존재하는 무수한 가능성을 향해 생각을 확장하고 열어준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알 권리가 있으며 만일 마땅히 알아야 할 정보를 얻지 못하면 그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가르쳐야 한다.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때가 있을까? 물론 있다. 단순한 일은 분명하게 지시를 내리면 된다. 매번 부모의 입장이나 이유를 설명할 필요는 없다. 아이들은 어떤 일에는 권위와 규칙이 필요하고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아이들은 자라면서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지만 무슨 일을 시키면서 당장 그 이유를 설명해 줄 필요는 없다. 나중에 설명해 주어도 된다. 질문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 아이와의 힘겨루기가 되면 안 된다.

긍정적인 변화를 하지 못 하는 이유 중에서-

- 내 잘못이 아니다 - 사람들은 자신을 돌아보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사장은 왜 그 렇게 명청한가?" 또는 "왜 그들은 항상 나에게 이러는가?" 등과 같은 생각을 아무리 해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나는 지름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왜 이런 느낌이 드는가?"라고 묻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초점을 자신의 내면에 맞추자. 인생에서 주인공은 자기 자신이다. 인생이라는 경기에서 공격수가 되자.

다시 아이가 되자

어른이 되면 질문을 해도 딱 한 번만 하고 그만둔다.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해도 그냥 넘어간다. 모호한 대답에 익숙해진다. 질문에 질문을 거듭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해도 그 이유를 묻지 않는다. 세상에 대한 호기심은 사라지고 없다. 오히려 이 세상과 사람들과 특히 자기 자신에 대해 무엇을 알게 될지 두려워한다.

세상은 변하고 우리도 변한다. 우리의 바람과 필요와 욕망은 학교를 졸업할 때부터 손자를 안을 때까지 계속 변한다. 그리고 계속 성장한다. 미래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없다. 그래서 인생은 살 만한 가치가 있다.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우리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변화한다. 한때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질문을 했던 아이였던 것처럼 계속해서 적절한 정보를 구하고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 질문을 해야한다.

도전을 받고 생각을 해야 할 때 가장 행복하다. 인생의 절정기가 언제였느냐고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고등학교나 대학 시절을 이야기한다. 그 이유는 그 시절에는 지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자극을 받았기 때문이다. 다양한 사고와 아이디어와 사람들과 문화에 열려 있었다. 삶에 몰두해 있었다.

질문이 지닌 힘에서 가장 궁극적인 힘은 자기 자신에게 있다. 그 힘은 질문을 하고, 대답에 귀를 기울이고, 행동을 취하는 것이다.

류동민, 시간은 어떻게 돈이 되었는가?

시장으로 불려 나와 팔리기를 기다리는 상품 안에는 이미 사람들 사이의 사회관계가 담겨 있다. 객체를 생산함으로써 주체 스스로도 만들어진다. 제화 노동자의 눈에는 사람들의 발부터 보이고 피부과 의사의 눈에는 사람들의 살결부터 들어오듯이, 내가 무엇을 만드는 사람인가는 내가 누구인가를 규정한다. 게다가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온전히 책임지지 않는 한, 나는 누군가와 협력하고 갈등하면서 상품생산에 참가할 수 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가치는 상품의 속성이 아니라 관계로부터 나오는 개념, 혹은 관계 그 자체라는 점을 강조해 둘 필요가 있다. 시장에서 상품과 상품, 좀 더 현실적으로는 상품과 돈이 교환될 때, 배후에서 교환을 결정하는 구조가 바로 가치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주체(상품 소유자)는 객체(상품)의 대리인으로서만 나타난다. 상품 소유자의 욕망은 자신이 가진 상품을 통해서만 관철되기 때문이다. 시장은 상품이 말을 하는 공간, 더 정확하게는 '돈이 말을 하는 Money Talks' 공간에 다름 아니다. 예를 들어, 일자리를 원하는 주체의 욕망은 결국 자신이 갖고 있는 노동력의 유용한** 속성, 이른바 스펙이 지불능력을 가진 이의 주목을 끌 때에만 관철된다.

**이때의 '유용함'은 노동력을 구입하는 측에서 본 것이다.

소득 분배가 순전히 기술적 과정인가, 아니면 교섭력의 차이를 반영하는 정치적 과정인가는 경제학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논쟁거리다.* 그러나 분배 이전에 이미 노동시간의 사회화 자체가 정치적 과정이기도 하다.

*소득 분배가 기술적 과정이라면 본질적으로 불공평함은 사라진다. 그것이 무엇이건 기술적 지표에 의해 내가 받는 소득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득 분배에 정치적 힘이 개입한다면, 그 힘은 애초에 어떻게 배분된 것인가를 설명해야 한다.

빵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물리지 않고 만족이 증가하진 않는다. 우리의 수용 능력을 넘어서는 욕망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남아도는 빵을 돈으로 바꿀 수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희소성은, 현실적으로는 재화의 희소성이 아니라 돈의 희소성이다. 재화를 향한 욕망은 이내 포화 상태에 이를 수 있다. 그러나 돈은 아무리 많아도 희소한 것이다!

내가 베푼 호의가 정확히 그 감사에 해당하는 크기의 돈 혹은 선물로 되돌아올 때 나는 기분이 나빠지거나 심지어는 슬퍼진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시장경제가 발전할수록 돈에 자아를 투영시키는 것을 점점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게끔 한다. 비인격적 관계가 작동하는 시장 영역에서는 모자라지도 남지도 않는 딱 그만큼의 등가물이 반환되어야 한다.

화폐 형태에 관한 도식에서 보듯이, 화폐는 애초부터 하나의 권력, 그것도 막강한 권력으로서 성립한다. 교환의 매개물, 그리고 재화로 바뀜으로써만 간접적으로 만족을 줄 수 있는 화폐가 그 자체로 욕망의 대상이 되고 교환을 성립시키는 힘이 도리 때 화폐는 물신Fetish이 된다. 인간이 만들었으되 이제는 인간을 지배하는 것의 총칭이 물신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듯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최고의 물신은 돈이다.

대학 커리큘럼에까지 기업이 개입하는 취업 위주 교육은 기업이 부담해야 할 교육비 일부를 개인에게 전가하는 효과를 갖는다. 고도의 복잡 노동으로 인정되는 노동력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과 시간이 필요하게 마련이다. 그런데 그 돈과 시간 대부분을 개인 차원에서 부담해야 한다면, 그 복잡 노동은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력을 갖춘 계층만이 접근 가능한 직종이 되고 만다. 시장 원리에 입각한 수익성 논리가 철저하게 작동할수록, 플로우로서의 시간, 더 정확하게는 그에 대한 보상은 스톡으로서의 시간에 맞춰질 가능성이 커진다. 그러므로 플로우로서의 시간이 갖는 밀도는 커진다. 아니 큰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복잡 노동의 교육비가 공적 부담으로 총당될 때, 복잡 노동을 담당하는 것은 자금 부담 능력을 갖춘 계층이 아니라 해당 노동에 흥미와 소질을 갖춘 이들이 될 것이므로 사회 전체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홀로 제아무리 높은 '스펙'을 쌓는다 한들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무의미한 바, 그 '인정'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자본이다. 그러므로 애초부터 노동력의 재생산은 자본주의적 관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을 지닌다.

그러나 삶 속으로 스며드는 자본의 시간은 양면성을 지닌 모호한 것이다. 스마트폰이 시간을 죽이는 장치라 비난 하지만, 역으로 여가의 질을 평준화하는 장치일 수도 있다. 지극히 낮은 품질의 여가밖에 누릴 수 없는 이들에게 스마트폰은 적어도 남들처럼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다. 오히려 주목할 것은 텅 빈 시간으로서의 여가, 개별과 구체의 흔적이 지워지고 보편과 추상만 남은 세계로의 이동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사회과학자의 작업이 소설가의 작업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음을 발견한다.* 사회과학자는 자신이 연구 주제로 삼은 분과(경제학이라면 경제, 정치학이라면 정치)의 현실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묘사한다음, 그것으로부터 이야기Narrative를 만들어 낸다. 그 이야기는 현실에 기초하면서도 특정한 이론적 틀을 제시하거나 때로는 그 틀에 맞춰 다시 현실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현실을 벗어난다. 그러므로 사회과학도 어떤 의미에서는 메타포라 할 수 있다.

*한강의 '소년이 온다'(창비, 2014)는 최정운의 '오월의 사회과학'(풀빛, 1999)의 소설 버전이며, 후자는 전자의 정치학 버전이라 할 수 있다. 소설가 한강은 정치학자가 수행한 작업과 똑같이 과거의 기록을 뒤지고 증언을 들으며 분석한다.

어쩌면 성과주의의 핵심은 '성과에 따라 보상받는다.'라는 원칙보다는 오히려 그것이 뒤집어진 형태, 즉 '보상받는 것은 그만한 성과가 있기 때문임에 틀림없다.'라는 원칙에 있는지도 모른다. 인과 관계의 뒤집어짐, 그 속에서 모호해지는 인과 관계, 그것이 바로 물신이다.

유통의 시간에 적용되는 원리를 확장하면, 자본은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가치를 갖는다. 이제 일정한 크기의 자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에 대응하는 이자를 얻어 마땅하다고 여겨진다. 그것이 자본의 관점을 옹호하는 메타포라면, 이중의 메타포인 경제학이 이윤과 이자를 구분하지 않는 점은 어쩌면 당연하다.

시간의 착취가 문제시되는 현실에서 핵심은 회사 안에 딸린 풀장이나 와인 바가 아니라, 시간의 사용 권한을 누가 갖느냐에 있다. 극한의 경쟁에 내몰린 영세 자영업나는 그 누구에게도 고용되지 아니하며 심지어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고용하기도 하지만 결코 시간주권을 갖지 못한다. (...) 요컨대 시간주권은 '내 삶의 시간을 어떻게 설계하고 사용할지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리키며, '노동시간의 길이, 강도나 방식 등에 대한 결정권이나 조절권 없이 주어진 명령과 지시에 복종하기만 하는 삶'에서 벗어날 것을 요구한다. *

그러므로 시간주권은 무엇보다도 먼저 시간-노동의 메타포를 깰 것을 요구한다. 즉, 노동시간이 아니라 '노동자 시간Worker time'인 것이다.

*강수돌, '자본주의와 노사관계', 156-157쪽

자본의 논리가 노동시간의 절약이 아니라 화폐의 절약에 있다는 깨달음은 중요하다. (...) 마르크스의 말처럼 '기계의 사용'과 '기계의 자본주의적 사용'은 달라진다는 것이다. (...) 기계는 가동하지 않는 시간에도 '기회비용'을 발생시키므로 쉬게 내버려 두면 손실이 된다. 해서 노동의 시간은 기계의 시간에 맞춰진다.

'자본의 변태'라는 은유- 자본가의 머릿속에서는 수익이 공장에서 나오든 부동산 투기에서 나오든 질적으로 구분되지 않으며, 자신이 들인 밑천 전체에 대한 비율, 즉 수익률에만 의미가 부여된다.

예를 들어 우리는 경제성장이라는 말을 들으면, 소비할 수 있는 상품이 많아지는 상황을 머릿속에 더올린다. 스미스가 '국부론'의 첫머리에서 국부National Wealth를 "그 나라 국민이 소비할 수 있는 생활필수품과 편의품의 총량"이라고 정의하였을 때가 그러하다. 그렇다면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은 상품자본의 순환이라는 관점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위의 세 가지 형태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간주되는 것은 화폐자본의 순환이다. 무엇보다도 돈이 시장에서 말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을 가진다 (Money Talks!)는 의미에서 그러하다.**

**물론 경제성장률을 측정할 때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하기 때문에, 실제로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의 총량이라는 애초의 아이디어는 어떤 식으로든 유지되고 있는 셈이다.

현실이 먼저 변하고 메타포가 뒤따른 것인지, 아니면 메타포가 등장함으로써 현실의 변화가 유발된 것인지, 이를 바 '이중의 메타포'는 여기서도 작동한다. 메타포가 현실을 움직일 때 그것은 강력한 이데올로기 역할을 한다. 자본의 순환이라는 관점에 기초한 메타포는 '누구나 자본가의 관점에서, 무엇이건 자본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것', 바로 자본주의 사회의 지배 이데올로기가 된다.

이른바 가치사슬Value Chain의 세계화를 통해 자본순환이 공간적으로 분절되는 것도, 다루기 힘든 요인들을 모이지 않는 곳으로 넘겨 버림으로써 순환의 시간을 줄이려는 자본의 의도에 부합한다.

과거로부터 현재, 다시 현재로부터 미래로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온갖 불확실한 요소가 할인율에 계산 가능한 형태로 함축되어 있다. 불확실성은 사실상 사라져버리는 셈이다. 내일 출근길에 비가 올지 안 올지는 불확실하지만, 비 올 확률이 80퍼센트 (즉, 오지 않을 확률은 20퍼센트)로 알려지는 순간 불확실성은 위험으로 바뀌며 위험을 한데 모아서 Pooling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불확실성을 위험으로 바꿈으로써 시간은 가역적인 것이다.

금융화는 굳어진 시간을 흐르는 시간으로 바꾸는 장치인 동시에 역사적 시간Historical Time을 논리적 시간Logical Time으로 바꾼다. 역사적 시간은 돌이킬 수도 앞당길 수도 없는 시간이다. 역사적 시간 속에서 과거의 선택은 누적되어 현재를 제약하고, 다시 그건은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논리적 시간은 할인이라는 개념적 장치를 통해 현재와 미래를 자유로이 넘나든다. 현재는 축적되어 불어난 과거인 동시에 할인된 미래가 된다. 시간이라는 근원적 한계는 '시간=돈'이라는 은유속에서 극복되는 셈이다.

'시간=돈'이라는 메타포는 이렇게 '시간=노동'이라는 메타포를 통해 기계적 시간을 지나 가상의 시간의 영역으로 넘어간다. 이제 노동의 시간은 그 어떤 주춤거림이나 울퉁불퉁함도 없이 고르게 흘러가는 것으로 재구성된다. 플로우로 재구성된 시간은 일정한 지속 기간 동안 항상 일정하게 기여해야 한다고 여겨진다. <그림 11.4>에서 시간은 dt 라는 동질적 요소들의 조합으로 생각된다. 밀변의 길이가 똑같은 막대들의 합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노동력이 지출되는 자연적이고 인간적인 리듬과 무관하게 그 성과는 dt 단위로 평가된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기여하지 못한 시간은 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제 플로우로 기여한 만큼 플로우로 보상한다는 경제학의 원칙*이 성립한다. 그러나 그 원칙은 애초 노동력의 순환에 담겨있던 인간의 삶을 자본의 삶으로 치환함으로써 비로소 만들어지는 것이다.

*모든 생산요소는 그것이 노동이건 기계이건 땅이건 간에 각자가 생산에 기여한 만큼 보상한다는 이른바 한계생산력설이 그것이다.

현물(쌀)을 전혀 갖고 있지 않은 이가 계약금을 걸고 게임에 참가하여 벼락부자가 될 수도 있고, 그 벼락부자가 다시 노숙자가 되어 쓰러지기도 하는 그곳은 채만식이 묘사한 것처럼 거대한 도박장에 다름 아니었다. 도박장은 누군가 따면 반드시 그만큼은 누군가가 잃는 제로섬 게임에 기초한다. 미두는 종종 '카지노 자본주의'라고도 불리는 금융화한 자본주의의 원형이기도 하다. 존재도 하지 않는 가상의 시간을 기초로 현물의 시간을 착취하는 것, 바로 그것이 금융화의 본질일지도 모른다.

바로 시간의 가역성이다. 이렇게 시간의 가역성을 받아들이는 순간, 미래에 발생할 소득의 흐름은 할인*을 통해 하 나의 뭉칫돈으로 계산된다.** 바로 이것이 금융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기본 원리를 이룬다.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어음을 선이자 공제 후 현금으로 바꿔 주는 '와리깡'은 할인(Discount)을 의미하는 영터리 일본어다. 언어는 생물인지라 이제는 '깡'만 살아남아 '카드깡' 따위로 쓰인다.

헨리 조지의 구절을 마르크스식으로 해석해 보자. 철도회사가 발행한 허구의 금액은 가공자본이며, 실제로 생산에 투입되는 노동시간에 기초하고 있지 않다. 다만 이자나 배당이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는 사실로부터 가상으로 만들어진 허구의 시간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만들어진 허구의 금액은 결국 경영진의 소득으로 귀속된다. 즉, 생산과 무관하게 "양도 혹은 수탈을 통한 이윤"인 셈이다.

산업 혁명으로 성립된 공장제 시스템에서 노동자에게 요구하는 도덕적 자질은, 이를테면 시간 약속을 잘 지키고 지켜움을 참아 내며 타인과 협동하는 능력 등이다. 그러나 이른바 창조적 노동자에게 요구되는 도덕적 자질은 다소 다르다. 창조적 노동이 환상이라 주장하는 까닭은 개인적 자유를 기본으로 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비인격적 힘 Impersonal power에 객관적으로 종속된다는, 얼핏 보기에 모순적인 두 가지가 공존하는 현실 때문이다.

필연의 왕국에 사는 인간은 친족 공동체이건 회사이건 간에 자신이 속한 조직에 묶인 채 벗어날 수 없다. 조직은 인간의 자율성을 제약하지만, 한편으로는 점점 커지는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 주기도 한다. 그러므로 조직이 규정하는 틀에서 벗어날 때 얻는 자유는 결핍을 대가로 한다. 반면 자유의 왕국에서 개인의 자율적 발전은 조직의 발전을 위한 전제 조건이 된다. (...) 그러므로 노동시간의 양적 단축을 넘어서 질적 통제와 관련하여 노동자의 자율성을 찾아나가는 일이야말로 자유의 왕국으로 넘어가는 핵심 조건일 것이다.

미시적으로는 노동의 자율성을 회복하는 것, 즉 내 삶의 시간을 스스로 설계하고 사용할 권리인 시간주권을 확장하는 것, 그리고 거시적으로는 인간에게 필요한 재화를 생산하기 위한 노동의 최소화를 통해 해방적 삶의 조건을 만들어 나가는 것, 두 과제는 자주 긴장 관계에 놓인다. 먼저 생산력의 발전이 재화를 만드는 데 필요한 노동시간을 줄인다고 해서 저절로 시간주권이 확보되지는 않는다. 다음으로 노동시간의 주권을 확장하는 것은, 적어도 지금까지의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노동시간의 최소화를 위한 중요한 전제인 경제성장으로 귀결된다는 보장이 없다.

추상적으로 표현하면, 권력과 시간의 연결 고리를 깨는 일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과제다. 예를 들면, 양극화 문제의 본질은 결과로서의 소득이나 재산 분배만이 아니라 그 근원에 놓인 '말할 수 있는 권리의 양극화'에 놓여 있다. 기본소득은 소득과 노동시간 사이의 연결 고리를 끊어 놓는 대신 소득과 삶의 시간 사이의 연결 고리를 만드는 부분적 시도일 수 있다. 그러나 권력관계가 여전히 작동하는 상황에서 그러한 시도가 전면적으로 확장되기는 쉽지 않다. 소득 계층의 가장 윗부분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일어나고 있는 소득과 노동시간의 모호하면서도 의심스러운 연계를 선언하고 유지해 온 것은 바로 권력이기 때문이다.

대런 아제모을루, 제임스 A. 로빈슨,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1장 가깝지만 너무 다른 두 도시

이 책은 한 나라의 빈부를 결정하는 데 경제제도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만, 그 나라가 어떤 경제제도를 갖게 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정치와 정치제도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궁극적으로 미국의 좋은 경제제도는 1619년 서서히 부상한 정치제도에서 비롯되었다. 정치 및 경제 제도의 상호작용이 한 나라의 빈부를 결정한다는 것이 우리가 제시하는 세계 불평등 이론의 골자다. 또 지구촌 각 나라가 어떤 연유로 지금과 같이 서로 다른 제도를 갖게 되었는지 역시 이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3장 번영과 빈곤의 기원

나라마다 경제적 성패가 갈리는 이유는 제도와 경제 운용에 영향을 주는 규칙,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인센티브가 다르기 때문이다. 남북한 청소년이 자신의 삶에서 어떤 기대를 할지 상상해보라. 궁핍하게 자란 북한 청소년은 숙련직을 꿈꿀 만큼 진취적인 기상이나 창의력도 부족하고 교육도 충분히 받지 못한다. 학교에서 받는 교육이라고 해봐야 정권의 정통성을 지탱하려는 순수한 체제 선전이 대부분이다. 컴퓨터는 고사하고 책도 별로 없다. 학교를 마치면 하나같이 10년 동안이나 군 복무를 강요받는다. 불법적인 사적 경제활동을 통해 생계를 꾸려가는 이들이 수두룩하지만, 북한 청소년은 자기만의 재산을 갖거나, 회사를 차리거나, 생활수준 향상을 꾀할 수조차 없다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자신이 습득한 기술이나 번 돈을 사용해 필요하거나 원하는 물품을 살 수 있는 시장 근처에도 가지 못한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 이들에게는 어떤 인권이 주어질지조차 불확실하다.

남한의 청소년에게는 양질의 교육을 받고 자신이 선택한 직업에서 온 힘을 다해 두각을 나타낼 만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남한은 사유재산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경제 국가다. 남한 청소년은 기업가나 근로자로서 성공한다면 언젠가 자신의 투자와 노력의 결실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들은 돈만 있으면 생활수준을 높이고 자동차와 집 등의 소비재를 살 수 있으며 보건도 걱정할 이유가 없다.

남한에서는 국가가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법질서를 유지해준다. 그 덕분에 기업가는 은행과 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릴 수 있고 외국 기업이 남한의 기업과 제휴를 맺을 수 있으며, 개인은 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살 수 있다. 남한에서는 대체로 원하면 무슨 사업이든 벌일 수 있다. 북한에서는 어림도 없는 소리지만, 실제로는 굶어 죽지 않기 위해 불법적으로 은밀히 이런 활동을 하는 주민이 적지 않다. 남한에서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상품과 서비스를 팔며, 어떤 식이든 원하는 대로 시장에서 돈을 쓸 수 있다. 북한에 있는 시장이라고는 암시장뿐이다. 남북한 사람들은 바로 이런 전혀 딴판인 제도하에 살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더 많은 일반 대중이 경제활동에 참여해 자신의 재능과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며 개개인이 원하는 바를 선택할 수 있는 포용적 경제제도inclusive economic institutions를 시행하고 있다. 경제제도가 포용적이라는 것은 사유재산이 확고히 보장되고, 법체제가 공평무사하게 시행되며, 누구나 교환 및 계약이 가능한 공평한 경쟁 환경을 보장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뜻이다. 포용적 경제제도는 또한 새로운 기업의 참여를 허용하고 개인에게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한다.

고도의 중앙집권화로 정치권력을 확실히 장악하지 못했다면 한국의 군부 엘리트층이나 중국공산당은 의미 있는 경제개혁을 추진하면서도 권력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확신을 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또 소련과 중국이 경제활동을 조율해 더 생산성이 높은 부문으로 자원을 분배할 수 있었던 것도 중앙집권화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착취적 정치제도를 구분하는 잣대는 중앙집권화의 정도라 할 수 있다. 여러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의 사례에서 보듯이 중앙집권화 없이는 제한적인 성장조차 달성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4장 작은 차이와 결정적 분기점

잉글랜드(훗날 영국이 되지만)의 산업혁명으로 세계 불평등은 급격히 심화되었다. 아크라이트와 와트, 그들의 뒤를 이은 다른 발명가들이 일구어놓은 혁신과 신기술을 채택한 것은 지구촌 일부 지역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기술 혁신의 물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가난에 시달릴 것인지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달성할지 엇갈린 운명을 걷게 된다. 하지만 각 나라의 대응은 역사적으로 어떤 제도를 발전시켜왔느냐에 따라 크게 달랐다. 18세기 중엽이면 이미 전 세계의 정치·경제 제도가 두드러진 차이를 드러내고 있을 때였다. 대체 이런 차이는 어디서 유래하는 것일까?

결정적 분기점에서 전개되는 사건의 결과는 역사의 무게에 따라 달라진다. 당대의 힘의 균형은 물론 정치적 실현 가능성 결정하는 것은 기존의 정치·경제 제도라는 뜻이다. 하지만 그 결과는 역사적으로 미리 정해진 필연이 아니라 우발적contingent인 것이다. 결정적 분기점에서 기존 제도가 정확히 어떤 발전 경로를 따를지는 서로 충돌

하는 힘 중에서 어느 쪽이 살아남느냐, 어떤 집단이 효율적인 연합세력을 구성하느냐, 어떤 지도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사건을 이끌어가느냐에 달려 있다.

5장 착취적 제도하의 성장

하지만 착취적 제도하의 성장은 포용적 제도가 가져다주는 성장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무엇보다 중요한 차이점은 착취적 제도하의 성장은 기술적 변화를 필요로 하는 지속적인 성장이 아니라 기존 기술에 바탕을 둔 성장이라는 점이다. 구소련의 경제 역사만 보더라도 생생하게 드러나는 사실이다. 착취적 제도하에서 정부가 권위와 인센티브를 내세우며 고속 경제성장을 주도할 수 있을지라도 이런 성장은 머지않아 제동이 걸리고 결국 무너지고 만다.

하지만 인류학자 메리 더글러스Mary Douglas와 사학자 얀 반시나Jan Vansina는 1950년대 이들 부족을 연구하면서 놀라운 차이점들을 발견한 바 있다. 더글러스는 이렇게 지적했다. “렐레 부족은 가난하지만 부송 부족은 부유하다.... 렐레 부족이 무언가를 가지거나 또 할 수 있다면, 부송 부족은 더 많이 가지거나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불평등 현상은 쉽게 설명할 수 있다. 포토시 미타의 영향권에 있었느냐에 따라 페루의 지역들이 그러했듯이, 렐레 부족은 생계를 위해 생산하는 데 반해 부송 부족은 시장에서 교환하려고 생산을 한다는 것이 한 가지 차이점이다. 또 더글러스와 반시나는 렐레 부족이 한층 낮은 수준의 기술을 사용한다는 사실도 발견했다. 가령 이들은 사냥할 때 엄청나게 생산성을 높여줄 수 있는데도 그물을 사용하지 않는다. 더글러스는 이렇게 주장한다. “그물의 부재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장비에 시간과 노동력을 투자하지 않으려는 렐레 부족의 일반적인 경향과 일맥상통한다.”

6장 베네치아 폐쇄

하지만 이런 조류 속에서도 늘 갈등이 존재했다. 경제성장을 뒷받침했던 베네치아의 포용적 제도는 창조적 파괴를 수반했다. 코멘다와 다른 유사한 경제제도를 통해 신흥 부자가 되는 젊은 기업인의 물결이 출렁일 때마다 기성 엘리트층의 이익과 경제 성공의 결실을 갉아먹곤 했다. 단지 이익만 줄어드는 게 아니었다. 신흥 부자들은 기존 엘리트층의 정치권력에도 도전했다. 따라서 대평의회에 참여하는 기성 엘리트층은 늘 말썽만 생기지 않는다면 새로운 인물이 이 체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고 싶은 유혹을 느꼈다

로마제국 시절 창조적 파괴의 정치적 후폭풍을 우려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도 발견된다. 수에토니우스Suetonius(로마의 역사가이자 전기작가 - 옮긴이)는 기원전 69년에서 79년까지 재위했던 베스파시아누스Vespasian의 일화를 들려준다. 한 사내가 로마의 성채인 카피톨리누스Capitol 언덕으로 기둥을 운반할 수 있는 기구를 개발했다며 황제를 찾았다. 기둥은 워낙 크고 육중해서 운반하기가 대단히 까다로웠다. 채석장에서 이런 기둥을 깎아 로마까지 옮기려면 정부는 수천 명의 노동력과 엄청난 비용을 투입해야 했다. 이 사내를 죽이지는 않았지만, 베스파시아누스 역시 이런 이유로 발명품 사용을 거부했다. “그럼 백성을 어떻게 먹여 살리란 말인가?”

어차피 로마 정부는 기둥 생산과 운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던 터라 깨지지 않는 유리보다 한결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도 창조적 파괴의 위협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 발명품도 거절했다. 경제적인 면이 아닌 정치적인 면에서 창조적 파괴를 두려워한 것이다. 베스파시아누스 황제는 백성을 만족시켜 통제하지 못하면 정치적 불안을 초래할 것이라 걱정했다. 로마 지도층은 바쁘게 살고 고분고분한 평민을 원했다. 따라서 기둥을 옮기는 것과 같은 일거리가 필요했다. 무상으로 제공하던 빵과 서커스 등 오락거리와 함께 민심을 다독이기 위한 보완책이었던 것이다. 특기할 만한 것은 이 두 가지 사례가 모두 공화정 몰락 직후 발생했다는 사실이다. 공화정 당시 지배층보다 로마황제가 변화를 막기 위해 휘두른 권력이 한층 강력했다는 뜻이다.

이 책에서 여러 차례 살펴보겠지만, 노예제도나 농노제도처럼 억압적인 노동환경에 기반을 둔 경제는 혁신과 거리가 멀기로 악명이 높다. 이점에서만큼은 고대나 근대나 다를 게 없다. 가령 미국에서도 북부의 주들은 산업혁명에 참여했지만 남부는 그렇지 않았다. 물론 노예를 소유하고 농노를 틀어쥔 계층은 노예제도와 농노제를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했지만, 사회 전체를 위한 기술혁신이나 번영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7장 전환점

나투프의 아부 후레이라 취락 주민의 기대 수명은 고대 로마 시민이나 크게 다를 바 없었을 것이다. 전형적인 로마인의 기대 수명은 17세기 잉글랜드 거주자의 평균수명에 매우 근접했을 것이다. 소득 면에서는 기원후 301년 로마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최고 가격 제한 칙령Edict on Maximum Prices’을 공포해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임금을 못 박아버렸다.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의 임금 및 가격 통제 정책이 정확히 얼마나 제대로 시행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경제역사가 로버트 앤런Robert Allen이 이 칙령을 토대로 전형적인 미숙련 노동자의 생활수준을 계산해본 결과 17세기 이탈리아 미숙련 노동자의 생활수준과 거의 일치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한참 북쪽에 있는 잉글랜드에서는 임금이 훨씬 높았고 꾸준히 증가하는 등 사뭇 다른 양상이 전개되고 있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살펴보는 것이 이번 장의 주제다.

정부제도를 중앙에 집중함으로써 처음으로 포용적 정치제도가 가능해졌다. 헨리 7세와 헨리 8세가 주도한 이 과정은 정부제도를 중앙으로 집중시켰을 뿐 아니라 폭넓은 대의정치에 대한 요구가 한층 커지는 계기를 마련했다. 정치권력의 중앙집권화 과정은 왕과 막료가 권력을 틀어쥐고 사회의 다른 권력집단을 탄압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절대왕정으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앞서 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정부제도의 중앙집권화를 반대하는 이들이 내세우는 한 가지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런 욕구에 맞서 정부제도의 중앙집권화는 잉글랜드에서 튜더왕조가 그려했듯이 기초적인 수준이나마 다원주의를 외치는 목소리를 키워주기도 한다.

정치권력이 갈수록 중앙으로 쏠리고 그런 과정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귀족과 지방 엘리트층은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 발언권을 요구하는 쪽으로 전략을 바꾸게 된다. 15세기 후반과 16세기 잉글랜드에서는 이런 세력이 왕실 권력에 대한 견제 기구로 의회를 활용하게 되었고 부분적으로나마 정부의 기능 역시 의회를 통해 통제할 수 있었다. 따라서 튜더왕조의 정책은 포용적 제도의 한 축인 중앙집권화만 성공시킨 것이 아니다. 포용적 제도의 또 다른 축인 다원주의에도 간접적으로 이바지한 것이다.

1688년 이후 사유재산권이 한층 안정된 것은 의회의 이해관계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청원을 통해 다원적 제도에 영향을 줄 수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여기서도 1688년 이후 정치제도가 훨씬 더 다원주의적으로 변모했고 잉글랜드 내에서 비교적 평등한 사회가 만들어졌다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 벌어진다 해서 진정한 다원주의 정권이 반드시 들어서리라는 보장은 없었다. 그런 정권의 태동은 부분적으로 역사의 우발적 경로를 따른 결과였다 할 수 있다. 스튜어트왕조에 맞서 싸운 잉글랜드내전에서도 연합세력이 승리했지만 올리버 크롬웰의 독재로 이어진 바 있다. 연합세력의 힘이 강하다 해서 반드시 절대왕권을 물리칠 수 있다는 뜻도 아니다. 제임스 2세는 오렌지 공 윌리엄을 물리쳤을 수도 있다. 다른 정치적 갈등의 결과나 마찬가지로 주요 제도적 변화가 걷는 길 역시 역사의 우발성에 좌우되기 마련이다. 제도적 부동 과정으로 절대왕정에 반대하는 광범위한 연합세력이 만들어지고 대서양 무역 기회라는 결정적 분기점으로 스튜어트왕조가 불리한 입장에 처했었다 하더라도 역사의 우발성을 무시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잉글랜드의 사례에서 다원주의 및 포용적 제도가 태동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역사적 우발성과 광범위한 연합세력이라고 할 수 있다.

8장 발달을 가로막는 장벽

이번 장에서는 산업혁명으로 결정적 분기점이 만들어졌는데도 수많은 나라가 산업 발전의 기회를 놓치고 만 이유를 살펴본다. 오스만제국처럼 절대주의적 정치·경제 제도가 이어졌거나, 소말리아처럼 중앙집권화가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에스파냐의 절대왕정은 사유재산권의 불안정을 초래했다. 그뿐만 아니라 절대주의 체제가 무역 관련 경제 제도와 식민제국 발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전 장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잉글랜드가 경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상업이 급속도로 팽창한 덕분이었다.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에 비하면 잉글랜드는 대서양 무역에서 후발주자였지만 무역과 식민지 관련 사업에 비교적 광범위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에스파냐에서는 새로운 경제적 기회가 왕실의 배만 불려주었지만, 잉글랜드에서는 신흥 상인 계급도 수혜를 입었다. 잉글랜드에서 초기 경제 환경의 기틀을 마련한 것이 바로 이 상인 계층이었으며 절대왕정에 반대하는 정치연합의 보루 역할을 한 것도 이들이었다

잉글랜드와 에티오피아를 비교하면 세계 불평등을 이해할 수 있다. 에티오피아가 오늘날 이런 형편인 이유는 잉글랜드와 달리 최근까지도 절대주의 체제가 존속했기 때문이다. 절대주의 체제는 착취적 경제제도를 불러왔고 에티오피아 인민 대다수를 가난에 찌들게 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배를 불린 것은 황제와 귀족뿐이다. 하지만 절대주의 체제가 갖는 가장 큰 시사점은 에티오피아 사회가 19세기와 20세기 초 산업화의 기회를 활용하지 못했고, 그에 따라 오늘날 끊어질 듯한 가난을 초래했다는 사실이다.

7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유럽의 대서양 진출은 영국에서 포용적 제도에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되었다. 네덜란드가 몰루카에서 그려했듯이 유럽의 팽창정책은 세계 도처에서 기존 착취적 제도를 강요하고, 더 나아가 한층 더 강화하면서 해당 지역에 저개발의 씨앗을 뿌렸다. 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갓 피어오르던 상업 및 산업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저해하거나 아예 산업화를 가로막는 제도를 뿌리내렸다. 그 결과 다른 지역에서는 산업화가 한창일 무렵에도 유럽 식민제국 지배 아래 있던 지역은 이런 신기술로부터 수혜를 입을 가능성성이 전혀 없었다.

9장 발전의 퇴보

트란스케이의 낙후성은 역사적인 아프리카 낙후성의 잔재라고만 할 수는 없다. 트란스케이와 나탈 간에 목격되는 이중 경제는 사실 꽤 최근에 벌어진 일이고 결코 자연 발생적인 것도 아니다. 남아프리카 백인 엘리트층이 값싼 노동력을 확보하고 흑인의 경쟁을 저지하기 위해 고의로 만들어낸 것이다. 이중 경제는 오랜 세월 자연 발생적으로 축적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저개발 사례라는 뜻이다.

10장 번영의 확산

이처럼 프랑스혁명은 봉건제도 및 그와 관련된 의무와 세금을 단숨에 혁파했고, 사제와 귀족이 누리던 면세 혜택 역시 모조리 철폐해버렸다. 하지만 가장 급진적이고 당시로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개혁은 제11조였다. 태생과 관계없이 온 시민은 성직, 공직, 군대를 가리지 않고 어떤 직위나 품위라도 누릴 자격이 있으며 어떤 직업도 천하게 여기지 않는다.

19세기 이후 전개된 주요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느냐는 궁극적으로 앞서 설명한 제도적 환경에 따라 갈렸다.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는 세계 불평등의 뿌리는 바로 이런 제도적 확산擴散에서 비롯된다. 일부 예외가 있긴 하지만 19세기에 시작된 산업화 및 기술 변화의 조류에 몸을 실었던 나라가 오늘날에도 잘사는 반면, 그렇지 못했던 나라는 여전히 가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11장 선순환

물론 포용적 경제제도와 정치제도 간의 긍정적인 피드백이 활발히 이루어져 그런 행동을 부추긴 면도 없지 않다. 포용적 경제제도는 포용적 시장의 발달로 이어져 자원이 한층 더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교육을 받고 기술을 습득하려는 의욕에 불을 지폈으며, 기술혁신을 증진시켰다.

이런 긍정적인 피드백이 갖는 또 하나의 특징은, 포용적 정치·경제 제도가 정착되면 권력을 장악해야 한다는 강박감이 줄어든다는 사실이다.

선순환의 논리는 그런 억압적인 행보가 갈수록 비현실적임을 의미하기도 했다. 이 역시 포용적 경제제도와 정치제도 간의 긍정적 순환 고리 덕분이다. 포용적 경제제도하에서는 착취적 제도하에서보다 자원이 더 공평하게 배분된다. 따라서 일반 시민의 권한이 커지고 더 공평한 경쟁 환경이 조성된다. 권력을 쥐기 위한 경쟁이라 해도 다를 게 없다. 이렇게 되면 소수 엘리트층이 대중 혹은 최소한 그중 일부를 탄압하기보다 차라리 비위를 맞춰주는 편이 낫게 된다. 영국의 포용적 제도는 이미 산업혁명의 바람을 몰고 왔고 영국은 고도로 도시화되어 있었다. 도시에 밀집되어 어느 정도 조직적인 힘을 가진 시민을 억압하기란 농민이나 땅에 예속된 농노를 탄압하는 것보다 한층 더 어려웠을 것이다.

선순환의 고리를 통해 영국은 1832년 제1차 선거법 개정을 단행하게 된다.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했다. 진정한 민주주의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었다. 1832년 엘리트층의 개혁은 자신들이 딱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선에 그쳤기 때문이다.

투표용지ballot'라는 표현은 비밀투표를 의미했다. 매표행위와 특정 후보를 강요하던 공개투표의 관행에 종지부를 찍자는 것이었다.

영국에서 점진적 변화가 실현 가능했고 바람직하기까지 했던 것은 바로 명예혁명에서 싹튼 다원주의와 그와 함께 도입된 법치주의 덕분이었다.

프랑스혁명을 줄기차게 반대했던 영국의 보수 논객 에드먼드 버크Edmund Burke는 1790년 이런 글을 썼다. “오랜 세월 사회 공동의 목적에 부합해온 체제를 뿌리 뽑으려 하거나 혹은 유용성을 인정받은 모형이나 패턴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체제를 다시 세우려 한다면 무한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버크는 큰 그림을 잘못 보고 있었다. 프랑스혁명은 자국뿐 아니라 서유럽 대부분 지역에서 썩은 체제를 갈아 치우고 포용적 제도가 들어설 토대를 닦아주었다. 그렇다고 버크의 경종이 완전히 빗나갔다고는 할 수 없다. 1688년에 시작되어 버크가 사망하고 30년이 지난 뒤 본격화된 영국의 점진적 정치개혁 과정이 더 성공적이었던 것은, 점진적이라는 특징 덕분에 그만큼 더 강력하고 거부하기 어려웠으며 궁극적으로 더 견고했기 때문이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강도귀족과 독점 트러스트의 발호는 3장에서 이미 강조했듯이, 시장이 있다고 해서 포용적 제도가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여실히 증명해준다.

20세기 전반 미국의 경험은 또한 사회에 두루 힘을 실어주고, 따라서 선순환을 일으키는 자유언론의 역할이 얼마나 막중한지도 증명해준다.

트러스트 문제를 바로잡으려고 정치인이 발 벗고 나서게 된 데는 마크레이커의 역할이 컸다. 강도귀족은 마크레이커에 이를 갈았지만, 미국의 정치제도 때문에 이들을 짓밟거나 입을 틀어막지 못했다. 포용적 정치제도하에서는 자유언론이 번성하고, 자유언론은 포용적 정치·경제 제도에 대한 위협을 널리 알려 저항의 기운을 불러일으킨다. 반면 착취적 제도, 절대주의 체제, 독재정하에서는 그런 자유가 불가능하다. 착취적 정권은 애초에 그런 제도와 체제를 이용해 반대 세력이 심각한 위협이 되기 전에 짓밟아버리기 때문이다. 20세기 전반, 미국에서 자유언론이 제공한 정보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런 정보가 없었다면 미국 대중은 강도귀족이 실제로 어느 정도 권력을 휘두르며 힘을 남용하고 있는지 끝내 깨닫지 못해 트러스트에 대항하는 운동이 불타오르지 못했을 것이다.

두 법안의 운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일화에서 배워야 할 전반적인 교훈이다. 포용적 정치제도는 포용적 경제제도에서 벗어나려는 큰 움직임을 견제할 뿐 아니라 정치제도 자체의 지속성을 훼손하는 시도 역시 제동을 건다는 사실이다.

라틴아메리카를 괴롭혔던 제도적 문제 대부분이 독립 이후 아르헨티나에서도 고스란히 재연된다. 아르헨티나는 선순환이 아닌 악순환의 함정에 빠진 것이다. 그 결과 대법원의 독립을 향한 행보 등 긍정적인 발전 노력이 발불일 곳조차 없었다. 다원주의가 뿌리내린 상황에서는 어떤 단체도 독자적으로 다른 권력의 전복을 원하거나 꾀하지 않는다. 그런 식이라면 자신들의 권력도 결국 도전에 직면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권력이 광범위한 계층에 분배되면 그런 전복 시도는 어차피 어려워진다. 독립성을 해치려는 시도를 물리칠 의지가 분명한 광범위한 사회계층이 성원을 보낸다면 대법원은 힘을 얻을 수 있다. 미국에서는 그랬지만 아르헨티나의 사정은 달랐다. 자신들의 입지도 언젠가 위협받을 것을 예기치 못한 것은 아니겠지만, 의원들은 거리낌 없이 대법원의 독립성을 훼손했다. 착취적 제도하에서는 대법원을 무너뜨려 얻는 소득이 그만큼 높으므로 잠재적인 이득이 위험을 상쇄하고도 남는다고 믿기 때문이다.

선순환은 여러 메커니즘을 통해 작동한다. 첫째, 다원주의 정치제도의 논리는 독재자, 정부 내 파벌, 심지어 선의 대통령이라 해도 권력 찬탈을 한층 더 어렵게 만든다.

둘째, 이미 여러 차례 살펴보았듯이, 포용적 정치제도와 포용적 경제제도는 서로 의지하며 확대되는 양상을 띠게 된다. 이를 통해 또 다른 선순환 메커니즘이 작동한다. 포용적 경제제도는 노예제와 농노제 같은 극도로 추악한 착취적 제도를 뿐만 아니라 독점의 실효성을 바래게 하며, 역동적인 경제를 창출한다. 이에 따라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누군가 정치권력을 찬탈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소득이 많이 줄어드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포용적 정치제도하에서는 자유언론이 번성할 수 있고, 자유언론은 포용적 제도를 위협하는 움직임을 널리 알려 저항 세력을 부채질하는 역할을 하는 사례가 많다.

12장 악순환

시장기구의 정책이 농민에게 이토록 불리한 이유는 이들에게 정치권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시장기구의 가격 정책 만큼이나 토지 사용권을 불안하게 하는 다른 근본적인 요인도 농민의 투자 의욕을 갉아먹긴 마찬가지였다. 시에라리온의 대주장은 법질서를 유지하고, 사법권 및 징세권을 누렸을 뿐 아니라 '토지 관리인'의 역할도 겸했다. 가족과 씨족, 가문들이 토지 사용권과 전통적 권리를 가졌지만 궁극적으로 누가 어디서 농사를 짓는가를 결정하는 것은 대주장이었다. 예컨대 동일한 왕가 출신이어서 추장과 줄이 닿아 있지 않은 한 토지에 대한 사유재산권은 불안 할 수밖에 없었다. 토지는 매매하거나 대출을 위한 담보로 사용될 수 없었고 추장령 밖에서 태어난 사람은 '사실상' 사유재산권 확보라 할지 모를 커피, 코코아, 야자수 등 다년생 작물을 재배하지 못했다.

시에라리온의 발전 혹은 정체 상황은 분명한 악순환의 결과였다 할 수 있다. 애초에 영국 식민통치 당국이 착취적 제도를 수립했고 독립 이후 정권을 잡은 아프리카 정치인도 기꺼이 식민정부의 바통을 이어받았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일대에서 거의 어김없이 발견되는 패턴이라 소름이 끼칠 정도다. 독립 이후 가나, 케냐, 잠비아 등 수많은 다른 아프리카 나라도 시에라리온과 마찬가지로 희망을 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하나같이 악순환의 맥락에서 예측할 수 있는 패턴을 따르며 착취적 제도를 재수립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한층 더 악화되는 양상을 띠었을 뿐이다. 가령 이 중에서 영국이 만든 시장기구와 간접 통치체제가 사라진 나라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이런 악순환이 거듭되는 데는 당연한 이유가 있다. 착취적 정치제도는 착취적 경제제도로 이어져 다수를 희생시키면서 소수의 배만 불려준다. 따라서 착취적 제도로 이득을 보는 자들은 사병과 용병을 키우고, 판사를 매수하고, 정권 유지를 위해 부정선거를 저지를 충분한 자원을 가지게 된다. 또한 체제를 수호해야 할 이유가 분명해진다. 따라서 착취적 경제제도는 착취적 정치제도가 꾸준히 살아남을 토대를 다져준다. 착취적 정치제도를 기반으로 한 정권이 권력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유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경제적 부를 쟁길 수 있기 때문이다.

13장 오늘날 국가가 실패하는 이유

오늘날 국가가 실패하는 원인은 착취적 경제제도가 국민이 저축이나 투자, 혁신을 하겠다는 인센티브를 마련해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착취적 정치제도는 착취로 득을 보는 세력의 권력을 강화해주는 식으로 이런 경제제도를 뒷받침해준다. 착취적 정치·경제 제도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를지 몰라도 국가가 실패하는 근본 원인일 수밖에 없다.

콜롬비아의 정치·경제 제도는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모로 한층 더 포용적인 색채를 띠게 되었다. 하지만 일부 주요 착취적 요소는 그대로 남아 있다. 법질서와 사유재산권이 불안한 지역이 여전히 많은데, 아직도 전 영토를 아우를 수 있는 강력한 중앙집권정부가 존재하지 않는 탓이다. 콜롬비아 특유의 중앙집권화 실패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콜롬비아 정부가 불가피한 숙명이었던 것은 아니다. 이 역시 악순환의 결과였을 뿐이다. 콜롬비아의 정치제도는 정치인이 대부분 지역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법질서를 유지할 인센티브를 마련해주지 못한다. 정치인이 민병대 및 조직폭력배와 암암리에 또는 공공연히 결탁하는 것을 막아낼 만한 힘도 없다.

효율적인 정당체제를 통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대안을 만들어내기보다 폐론이나 차베스 등 독재자로 기울게 되고 또 그런 인물이 정치에 관심을 두게 되는 것은, 역시 기저에 깔린 착취적 제도 때문이다. 폐론과 차베스 등 라틴 아메리카의 수많은 독재자는 과두제의 철칙을 다시 한 번 증명해준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철칙의 뿌리는 엘리트가 장악한 정권에 달아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공산주의 경제제도를 지탱하는 것은 착취적 정치제도다. 소수 공산당이 모든 권력을 틀어쥐고 권력 집행에 대한 견제 수단도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형식만 다를 뿐 공산주의 착취제도는 하나같이 인민의 삶에 짐바브웨와 시에라리온의 착취적 제도와 다를 바 없는 영향을 준다.

14장 기존의 틀을 깬 나라들

보츠와나, 중국, 미국 남부는 잉글랜드의 명예혁명, 프랑스대혁명, 일본의 메이지유신과 마찬가지로 역사가 숙명이 아니라는 사실을 생생히 증명해준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면 착취적 제도는 포용적 제도로 바뀔 수 있다. 하지만 저절로 되는 것도, 쉬운 일도 아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한데 어우러져야 한다. 한 나라가 한층 더 포용적인 제도를 향해 한 발짝 성큼 다가갈 수 있으려면 특히 결정적 분기점이 마련되어야 하고, 개혁이나 다른 유리한 제도를 추구하는 광범위한 연합세력이 존재해야 하는 때가 많다.

15장 번영과 빈곤의 이해

번영을 엔지니어링하려는 시도는 두 가지 방식으로 전개된다. 먼저, 국제통화기금과 같은 국제기구가 선호하는 방식이다. 그릇된 경제정책과 제도에서 저개발이 비롯된다고 판단해 가난한 나라로 하여금 국제기구가 제시하는 개선안을 채택하도록 하는 것이다(워싱턴 컨센서스도 그런 개선안 목록을 들이밀었다). 이런 개선안들은 주로 가시적인 거시경제적 안정에 주안점을 두고 정부 부문의 축소, 융통성 있는 환율제도, 자본 시장 개방 등 언뜻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시경제적 목표를 제시한다. 민영화, 공공서비스의 효율성 개선은 물론 한발 더 나아가 부정부패 근절을 통한 정부의 기능 개선 방안 등 미시경제적 목표도 강조한다.

언뜻 간단히 바로잡을 수 있을 것 같은 미시적 시장실패의 여러 사례가 착각에 불과할 수 있다는 의미다. 시장실패를 초래하는 제도적 구조는 심지어 작은 부문에서조차 인센티브를 개선해보려는 개입 정책의 시행을 가로막기 마련이다.

한 가지 해결책은 최근 들어 사례가 늘고 있는 '조건부' 원조를 제공하는 것이다. 조건부 원조는 물론 심지어 해외원조의 성과마저 제도와 연관성이 있다는 인식에서 유래한다. 해외원조를 계속 받으려면 수혜 정부가 일정한 요건을 지키도록 하자는 것이다. 가령 시장 자유화 또는 민주화 정도가 조건이 될 수도 있다. 미국의 조지 부시 행정부는 이를바 '새천년 도전기금Millennium Challenge Account'을 마련해 이런 조건부 원조를 한층 적극 시행한 바 있다.

송길영, 시대예보: 핵개인의 시대

제 1장 K는 대한민국이 아니다

새로운 시대의 개인들은 국가가 아니라 자기만의 '세계관'을 선택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답답한 현실 속의 나보다 내가 원하는 세계관 속 자아를 진짜 자신이라 느끼기도 합니다. 물리적 현실의 나와 상상의 세계 속 나의 유격이

너무 클 때 분열이 일어나고 길을 잃기도 합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국가주의 세계관에만 머무른 시각으로는 여러 세계관을 동시에 가진 복수의 정체성을 가진 핵개인들과 소통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굳게 믿었던 토대가 흔들리는 경험은 수많은 사람들의 세계관에 균열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다음의 기전으로 나오는 반응은 그 지경이 되도록 '나라를 운영하던 당신들은 무엇을 했나'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가 그토록 허술한 것이었다면, 이제 내 삶길은 내가 찾아야겠구나'라는 '각자도생'의 결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본인의 정체성을 국가가 아니라 도시나 훨씬 작은 단위에 귀속시키면서 정체화하려는 움직임이 '서울러'라는 표현으로 구체화됩니다. 콩글리시 표현이지만 파리지앵 같은 선망을 담은 표현입니다. 이 단어는 본인보다 서울에 살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더 언급하는 표현으로, 그들은 스스로를 '지방러'라고 자조적으로 말합니다. 수도권 변두리 청년들의 애환을 리얼하게 그린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가 엄청난 지지를 끌어낸바 있습니다. '뮤지컬 공연 한편 보려고 KTX의 비싼 요금과 1박 2일 호텔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지방러의 설움' 같은 이야기들이 온라인에서 관찰됩니다.

국가와 국적은 태어나는 순간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정해지지만 그들은 내가 살아갈 도시만큼은 내가 선택하는 자기 결정권의 영역 안에 있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은 더욱 코즈모폴리턴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뉴요커의 라이프를 선망하던 서울 사람들은 뉴욕에서 한 달 살기를 경험해 보거나, 굳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문화적 시차 없이 동일한 라이프 스타일을 수입해 '서울러의 삶'으로 치환합니다. 이런 이유로 서울과 뉴욕이 다양성, 역동성으로 경쟁하는 현실이 도래한 것입니다. 미래의 국가는 도시 국가가 될 것이라는 학자들의 연구도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제 2장 코파일럿은 퇴근하지 않는다

이제까지 보살핌 노동은 온기를 지닌 인간의 고유 영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치매 노인을 돌보는 데는 오히려 감정이 없는 로봇이 더 유리하다는 사실이 현장에서 밝혀지기도 합니다. 이상 행동을 반복하는 치매 노인 앞에서 화를 참지 못하는 인간보다 감정이 제거된 로봇이 섬세한 케어를 지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돌봄 로봇, 서빙 로봇이 보편화되면 이제 '인간 서비스'가 다시 프리미엄 시장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온종일 AI와 대화하며 일하고 나면 AI는 대화할 때 내가 전달한 정보를 기반으로 나에 관해 더 깊게 학습할 것입니다. 그다음 나만의 컴포넌트 component(프로그램에서 재사용이 가능한 각각의 독립된 모듈)가 만들어지면, 이를 기반으로 더 정교한 인풋과 아웃풋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입력을 넣은 만큼의 지식이 집단적으로 형성되는 것입니다. 나와 AI의 상호작용을 통해 누구보다 나를 잘 이해하는 동료가 생성될 수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우리가 그의 목소리와 창법으로 인식하는 양상이 김광석 자기만의 스타일로 존재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과도 구별되는 김광석 특유의 서정적인 음색과 유랑자적인 무드, 그 고유함이 환금되는 것입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오는 수많은 참가자들이 아무리 노래를 잘한다 해도 그만의 특별함이 없으면 스타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고유함에 큰 가치를 부여합니다.

이처럼 앞으로 일을 잘하는 사람은 일을 열심히 하거나 숙련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을 없애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문제는 그의 직업이 일을 없애는 것이라면, 그 사람 본인은 그다음에 무엇을 할 것이냐는 모순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 앞으로의 과업은 지금의 일을 지켜내는 데에 있지 않고, 새로운 기술을 발판으로 파괴적 혁신을 해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빠르게 인정하고 변화에 적응하는 것입니다.

3장 채용이 아니니라 영입

이 모든 광경이 장님이 장님을 끌고 간 결과입니다. 부모들은 먼저 살았다는 이유 때문에 아는 척해야 하는 책문에 놓여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부모가 해야 할 일은 '나도 도 잘 몰라, 함께 고민하며 탐색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시 과정과 사교육은 고도화되었는데 입시 후의 대학 생활과 진로에 대한 논의는 유예 되었습니다. 행위는 전문화되었으나 목표는 전문화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과거와 현재의 단서만으로 미래를 단정 지어 어 진로와 교육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사회 변화와 다가올 미래를 제대로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그 변화에 맞추어 다음 세대의 기여를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매니징'의 전문성에 대한 논의가 중요해집니다. 낭비없는 촘촘한 조직일수록 구성원들이 일을 시작 할 때와 진행할 때 '필터링'과 '피드백'을 매우 정교하게 합니다. 필터링은 모든 업무를 현상 그대로 수용하여 관성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체로 거르듯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는 과정입니다. 피드백은 변화가 발생하게 된

동인들을 함께 돌아본 후에 새로운 방안을 수립해 보는 것입니다. '필터링'과 '피드백'이 중요해지는 이유는 변화하는 환경에서 세상의 복잡성을 빠르게 이해하고 일의 전체 맥락을 모두 검토해야만 일의 혁신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통상 우리의 시야는 좁고 단기적인 목표에 머물기 쉽습니다.

그럴 때 바깥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질문해서 핵심을 추출해내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이 현상에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현상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당장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최상위 책임자에게도, 말단 담당자에게도 핵심을 추출하고 시선을 재조정해주는 고도의 '필터링 지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역할이 바로 지금 시점에서 요구되는 새로운 리더의 역할입니다.

좁은 문, '하이엔드'에 길이 있다- 조직에서도 이쪽과 저쪽을 부드럽게 연결하는 사람, 복잡하고 어려운 말을 쉽고 간결하게 해주는 '통역자'가 뜰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최적화를 향한 추세와 부합합니다. 그동안 무시했던 구성원 개개인의 선호를 모두 맞춰주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수직적 관리자를 뜻했던 '매니저'의 자리는 점점 사라지고, 수평적 조력자를 뜻하는 '퍼실리레이터'의 역할이 부상할 것입니다.

어느새 한국 기업들의 고민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인건비가 상승하고 소비자의 취향이 고급화되는 추세 속에서 과연 무엇을 얼마나 생산하고 공급해야 하느냐? 시장의 규모와 범위를 어디까지로 상정해야 하느냐? 답은 간단합니다. '소량을 만들고 단가를 높이고 세계로 가야 한다.'

하이엔드는 개별성과 고유성이 교차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 기업도 개인도 여기서 돌파구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소량을 만들고, 단가는 높이고, 세계로 가는 것이 옳습니다.

제 4장 효도의 종말, 나이듦의 미래

물리적 노화가 아닐지라도 나이듦은 여러 가지로 고민스럽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 두 번째는 경제력과 소비력, 세 번째는 사회적 관계, 마지막으로는 삶에 대한 태도가 고민의 시작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 전반을 지배하는 가치는 '어떻게 함께 살 것인가'입니다. 나이를 기반으로 선을 긋고 구분 짓기를 반복한다면 각자가 서 있는 삶의 토대는 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생애주기에 대한 적응은 어떤 연령대도 피해갈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오래가고 함께 가는 공존을 위한 전제는 타자화를 멈추는 것입니다.

문제는 '나이'가 아니라 '나'이다 - 모든 것은 '나이듦'의 문제가 아니라 혹시 나의 문제가 아닐까 고민해 봐야 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멋지게 나이 든다'라는 이야기는 좀 다르게 해석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멋지게 나이 드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멋진 사람이 나이가 드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도 자신이 타자가 될 수 있음을 겁내지 않고, 새로운 타자를 만났을 때에도 주저함이 없습니다. 결론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다양성이 생태계의 희망입니다.

제 5장 핵개인의 출현

미래학자 다니엘 핑크는 <파는 것이 인간이다>¹⁸라는 책에서 모든 인간은 '자기 세일즈를 해야 된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팔아야 할까요? 가장 경쟁력 있는 상품은 '서사narrative'입니다. 각자의 서사는 권위의 증거이자 원료입니다.

성장과 좌절이 진실하게 누적된 나의 기록은 유일무이한 나만의 서사입니다. 나무의 나이테가 그러하듯 서사는 결코 급조될 수 없습니다. 오직 시간과 진정성으로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앞으로 서로에게 작은 팬덤이 되어주고, 그 팬덤에 기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규모의 팬덤이라도 계속 유지하려면 스스로의 성장세를 표현하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학교 졸업장, 기업의 사원증 같은 것은 이제 성취 인증 시스템에서 구시대적 유물로 통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검증된 깃허브의 스코어나 블로그의 구독자, 인스타그램의 달리기 기록처럼 '측정된 권위'를 쌓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계의 누구도 하지 않은 고민을 계속하면 적어도 그 누구보다 앞에 선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맨 앞에 있다면, 먼저 최대한 많이 고민해 본 것이라면, 그때 비교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스스로에게 너그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것은 산의 정상에 오른 뒤에야 산의 높이를 나타내는 숫자가가 목표가 아니었음을 깨닫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인정의 정점에는 나 자신으로부터의 인정이 이 있습니다.

이 시점에 이르면 밖으로부터의 인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이 결국 내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그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최고'라는 상댓값이 아니라, 가장 앞에 선 자가 맛보는 '최선'이라는 절댓값입니다.

이 전선의 앞에 서기 위해서는 희귀함을 추구하는 것이 옳습니다. 희귀함이 쌓이면 구유성을 갖습니다. 그러나 고유성이 진정성까지 가기 위해서는 축적의 시간이 이 다시 요구될 수 있습니다. 고유함은 나의 주장이고, 진정성은

타인의 평가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고유성과 진정성의 단서가 내가 오랫동안 쌓아둔 내러티브라는 것은 잊지 말아야 할 필수수 전제가 됩니다.

내가 부은 적금의 은행이 파산하고 내 적금이 지금 불능 상태에 빠진 것처럼, 내가 이 사회에 기여했다고 믿었던 것들의 토대가 빠르게 붕괴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우리는 '지연된 보상 시스템'의 말단에 놓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른은 아이를 돌보고 다시 아이는 자라 청년이 되어 어른을 돌보는 시스템이 와해된 것처럼 L부장을 L대리가 돋고 다시 L대리가 L부장이 되어 M대리를 찾는 시스템은 이제 여기서 종료하게 될 것입니다.

파혼이 좋은 소식이라 할 수만은 없지만 일어난 일은 이미 일어난 것입니다. 자포자기한 채 지금의 불행을 안고 나머지의 삶을 포기하는 우를 범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혼에 대해서도, 실직에 대해서도, 학업을 그만둔 것에 대해서도 축하의 의견과 공감이 제시될 만큼 우리 사회는 늘 더 긴 호흡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려는 의지입니다. 굴레처럼 보였던 현실에서 언제든 이탈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서로가 언제든 만나고 헤어지는 것이 가능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할 때에 더 나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어요. 이제 시간이 되었어요!"

점점 '쿨한 안녕'이 많아집니다. 있을 땐 위계 없이, 떠날 땐 원한 없이, 회자정리 거자필반입니다. 만나고 헤어지고 떠났다 돌아옵니다. 서로는 소중한 손님이며 지금 함께 있는 조직은 거대한 우주 속 환승 정류장과 같습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각자의 결정을 존중해야 합니다.

다큐멘터리 <어른 김장하>가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탈권위가 대세인 시대에 살고 있지만 정작 우리가 찾는 것은 '권위 해체'가 아니라 좋은 공동체, 좋은 어른이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는 한약사로 일하며 번 돈으로 장학 사업을 하고 어려운 이들을 돋지만 도움받은 사람들이 당신 주변에 모여 하나의 '세력'이 되는 것은 경계합니다.

서로가 진심을 다하고 그 성과를 존중하면 먼 길을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자기 인생의 능동적 결정권을 서로 존중해 주었을 때 이 시대의 개인들은 자기 삶과 사회 모두에 책임을 다하는 핵개인으로 거듭납니다.

에필로그

이처럼 기존의 권위는 계속 도전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전이 합의될 수 있을 만큼의 가능성으로 상호 인정이라는 새로운 권위가 우리 사회에 자리하게 됩니다. 하나의 길에 빼곡하게 줄을 서는 것이 아니라, 삼차원의 방사형으로 각자 목적지를 꿈꿀 수 있게 되는 순간 우리 모두는 자신만의 방향으로 전력 질주할 할 것입니다.

책이 추천한 책

- 1 폰 쇤부르크, <우아하게 가난해지는 법>
- 2 도로시 리즈, <질문의 7가지 힘>
- 3 사라마구, <눈먼 자들의 도시>
- 4 어니 젤린스키, <모르고 사는 즐거움>
- 5 룰프 셀린, <나는 단호해지기로 결심했다>

- 6 스즈키유, <오늘부터 나는 최고의 컨디션>
- 7 바이런 케이티, <네 가지 질문>

- 8 김지수, <자기 인생의 철학자들>
- 9 김지수, <자존가들>
- 10 김지수, <김지수의 인터스텔라>
- 11 페터 비에리, <자기 결정>
- 12 정혜윤, <퇴사는 여행>
- 13 정혜윤, <주 5일 출근하는 삶에서 독립>
- 14 바바 마사타카, <도쿄R부동산 이렇게 일 합니다>
- 15 찰스 핸디, <코끼리와 벼룩>
- 16 정혜윤, <인디펜던트 워커>
- 17 야마구치 슈, <뉴타입의 시대>
- 18 다니엘 핑크, <파는 것이 인간이다>